기본연구 2008-09

# 충청남도 역사도시의 역사문화자원 실태분석 및 활용방안

한상욱 · 이호정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 발 간 사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문화자원의 활용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문화적 부가가치의 경제적 영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아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생활을 반영한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산출되는 각종 파급효과가 매구 크기 때문에 그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볼 수 있듯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 즉 삶의 질을 우선시 하는 경향에 기인하며 그 한부분으로 역사문화자원을 비롯한 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정비를 통하여 문화적 가치를 높임으로서 역사·문화·생활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의미하고, 나아가서는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를 의미합니다.

본 연구는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과연 충청남도의 역사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공주와 부여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존·활용은 어떠한지 그 실태를 파악코자 하였습니다. 즉, 충남의 공주와 부여가 훌륭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함과 동시에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도시 나아가서는 창조도시로서 받돋움하기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그 활용가능 잠재력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한상욱 연구위원과 공주대학교의 이호정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연구수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연구심의위원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

# 연구요약

##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는 현대사회의 문화자원 활용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동시에 문화적 부가가치의 경제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잘 예증하는 것이다.

역사문화자원을 비롯한 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재정비를 통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역사·문화·생활환경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최근에는 역사환경에 대한 보전을 미래의 창조적 도시창출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도시경관의 다양성 부여, 도시의 역사성 부여를 통한 도시생활의 풍부함, 도시활성화 자원으로의 활용성 측면에서 역사문화환경이 논의되고 있다.

충청남도의 역사도시인 공주와 부여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나, 현재 공주, 부여에 입지하는 대부분의 역사문화자원들은 삼국시대 백제의 역사문화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활용에 있어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즉, 보전 일변도의 박물관적 보전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측면에 있어서 활용가능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한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차 역사도시로 대표되는 공주와 부여의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역사적 흔적을 갖고 있는 지역, 장소, 그리고 건축물이 보존일변도의 박물관적 보존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같이 살아 숨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전제하에 출발한다.

충청남도의 공주시와 부여군이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함과 동시에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도시 나아가서는 창조적 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그 활용가능 잠재력을 분석코자 한다.

둘째, 충청남도 역사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은 대부분 삼국시대 백제의 역사문화자원이 대부분으로 문화재 속성상 단순 및 원형 보존형태에 그치고 있으며, 그 분포 양상이 대부분 현재의 도심부에 밀집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도심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의 일환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재생사업의 추진이 예상된다. 충청남도의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심활성화 사업시 공간적 관계와 기능을 활용하는 사업이나 도시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시 기초자료 및 계획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공주・부여의 역사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활용의 가능성이 있는 387개소의 조사대상을 1차적으로 선정・조사한 후,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30개소의 주요대상을 추출하여 이에 대한 실태 분석과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일부 연대를 알 수 없는 역사문화자원 등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범위에 부합토록 공주 및 부여의 기존 시가지에 분포하는 역사문화자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기인하였으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틀을 준용하여 사용하였다.

공주・부여의 역사문화자원은 대부분이 백제시대와 조선시대에 집중・조성되어 있다. 백제시대의 고도로서의 역사문화자원의 분포는 삼국시대에 113개로서 29.2%, 조선시대 150개로서 38.8%를 차지하며, 전체 387개중에 263개소로서 전체 역사문화자원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공주와 부여의 다면적에 걸쳐서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 276개중 도심지내에 127개가 분포하여 도심지내에 분포하는 비율이 46.0%로서 도심지에 집중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활용적측면에 있어서는 대표 역사문화자원으로 선정된 전통자원은 보전 및 정비 상태도 매우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표역사문화자원은 문화재보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지자체의 조례 등의 규제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근대역사문화자원의 경우 보존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정비가 미흡하여 도시화의 과정중에서 중심시가지에 입지하게 되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훼손이 진행되어 그 활용적 가치가

쇠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예산투입이 백제시대의 대표문화재를 중심으로 투입 및 계획되어 있어서 근대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존활용방안이 모색 필요하다.

## 3. 결론 및 정책 제언

첫째, 기존의 문화재 위주의 전통역사자원에서 벗어나 경관자원, 전통역사자원, 근대역사자원, 문화자원, 경제자원, 무형자원을 포괄하는 역사문화자원은 총 405개로 조사되었다. 기초문화목록화된 역사문화자원은 시기적으로 볼때 삼국시대 113점, 조선시대 150점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공주와 부여가 백제의 수도였다는 점과 공주의 경우 충청도 감영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집중분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387개의 역사문화자원을 검토하여 지역적 가치, 원형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별하여 30개의 주요역사문화자원을 추출하였다. 전통자원은 역사적 가치와 지역적 가치측면에서 충분하다는 평가를 보였으며, 근대자원은 원형적 가치측면에서 풍부하다는 평가를 문화자원은 지역적 가치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평가를 보였다.

셋째,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 특성에서는 대표 역사문화자원으로 선정된 전통자원은 보전 및 정비 상태도 매우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역사문화자원은 지정문화재의 경우 원형보전의 단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변지역과 함께 정비하는 경우는 공산성, 관북리 백제유적, 정림사지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근대역사문화자원의 경우 보존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정비가 미흡하여 도시화의 과정중에서 중심시가지에 입지하게 되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훼손이 진행되어 그 활용적 가치가 쇠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예산투입이 백제시대의 대표문화재를 중심으로 투입 및 계획되어 있어서 근대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존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주・부여의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연구에서 역사문화자원을 검토하여 30개의 주요역사문화자원을 추출하였는 바, 30개소중 전통역사문화자원은 지정문화재로서 보호를 받고 있으나, 근대역사문화자원의 경우

현재의 호본상태가 양호하더라도 대부분 공주와 부여의 도심부에 위치함에 따라 도시화에 따른 훼손은 더욱 더 가속활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등록문화재로의 등록이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구체적인 활용대책의 마련과 복원이 가능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복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적으로 문제시 되는 제약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면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주와 부여에 있어서의 방향과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의 점적 보전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역사문화자원간 연계 및 자원간 밀집도· 활용도에 따른 지구적 차원의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지구적 차원의 접근을 위해서는 역사문화자원간 연계, 연사문화자원의 복합사업 추진이 병행추진되어야 한다.

공주시의 경우, 공주시의 경우, 공산성과 무녕왕릉, 송산리고분군, 국립공주박물관, 곰나루관광지, 공주문화관광지를 연계하고 하나의 전통역사문화자원의 축으로서 기능토록 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으며, 부여군은 경우 부소산성과 궁남지를 축으로 하여 정림사지 화지산을 연계하는 전통역사문화자원의 축을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근대역사문화자원에 있어서 공주시는 국고개, 구)국립 공주박물관, 공주문화원, 충청감영을 중심으로 근대역사문화자원의 코어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커뮤니티 활동 및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 차 례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3. 연구의 과정 ····· 4
4. 선행연구의 검토 ····· 5
5. 용어의 정의 ····· 9

## 제2장 관련 이론 검토 및 분석 틀 설정

1. 관련 이론 검토 ····· 13
1) 역사문화자원의 정의 및 요소 ····· 13
2) 역사문화자원의 정비 및 활용방법 ····· 15
2. 분석의 틀 설정 ····· 21
1) 조사·분석 방향 및 절차 ····· 21
2) 단계별 분석의 틀 설정 ····· 22

## 제3장 충청남도 역사도시의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실태분석

1. 역사문화자원의 현황 ····· 27
1) 역사문화자원 일반 현황 ····· 27
2) 역사문화자원의 시기별·문화재 지정별 특성 ····· 28
3) 역사문화자원의 공간별 분포현황 ····· 30
2.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실태 분석 ····· 36
1) 역사문화자원의 특성 ····· 36
2)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 실태 분석 ····· 38

3.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 특성 ····· 45
1) 전제 ····· 45
2) 전반적 특성 ····· 45

**제4장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1.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기본방향 및 전략 ····· 48
1) 기본방향 ····· 48
2) 역사문화자원 활용 전략 ····· 50
2. 공주·부여의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 52
1) 제도화를 통한 역사문화자원의 보호 ····· 52
2)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복원사업의 추진 ····· 52
3) 지구적 차원에서의 종합적·통합적 활용계획 추진 ····· 54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요약 및 정책제언 ····· 56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 58

**참고문헌 ····· 60**

**<부록> 공주부여의 역사문화자원 기초 목록 ····· 65**

# 표 차 례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
<표 2-1> 역사문화자원의 요소 ····· 14
<표 2-2> 역사문화자원 정비 및 관리방법 ····· 17
<표 2-3> 역사문화환경의 발전 단계 ····· 20
<표 2-4> 검토대상 역사문화자원의 분류기준 ····· 23
<표 2-5>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기준 ····· 24
<표 2-6>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보전·활용을 위한 조사분석 내용 ····· 25
<표 3-1> 공주·부여의 역사문화자원 현황 ····· 28
<표 3-2> 공주·부여의 시기별 역사문화자원 현황 ····· 29
<표 3-3> 공주·부여의 시기별 역사문화자원 현황 ····· 30
<표 3-4> 공주·부여의 도심지내 문화재 분포 현황 ····· 33
<표 3-5> 주요역사문화자원의 추출 근거 ····· 37
<표 3-6> 주요역사문화자원의 보존 실태 ····· 39
<표 3-7> 주요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실태 ····· 41
<표 3-8> 주요역사문화자원의 실태 및 특성 종합 ····· 42

#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진행과정 ····· 4
<그림 2-1>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조사·분석 절차 ····· 22
<그림 3-1> 공주시 동부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도 ····· 34
<그림 3-2> 부여군 부여읍의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도 ····· 35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는 현대사회의 문화자원 활용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동시에 문화적 부가가치의 경제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잘 예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화재는 민족문화의 자산이라는 본질적인 가치 외에도 도시의 개발과 관련하여 활용될 수 있는 효용가치가 풍부하다. 하지만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단순 보존 중심의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아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생활을 반영한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산출되는 각종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1] 더불어서 단일 문화자원에 대한 정비에서 벗어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코자 노력하고 있다. 즉, 역사문화자원을 비롯한 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재정비를 통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역사・문화・생활환경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2004년의 “고

1) 일본관광협회(1996), 觀光の魅力, 東京サユ印刷,p24.
2) 조용기(2006), 고도의 역사적 경관 보존・정비에 관한 연구,관광학연구 제30권 제1호, p152.

도보존에 관한특별법(이하, 고도보존법)"이다.

즉, 최근에는 역사환경에 대한 보전을 미래의 창조적 도시창출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도시경관의 다양성 부여, 도시의 역사성 부여를 통한 도시생활의 풍부함, 도시활성화 자원으로의 활용성 측면[3]에서 역사문화환경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배경 아래 충청남도의 역사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공주와 부여를 대상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주민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문화재의 원형보존보다는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4]

충청남도의 역사도시인 공주와 부여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나, 현재 공주, 부여에 입지하는 대부분의 역사문화자원들은 삼국시대 백제의 역사문화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활용에 있어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즉, 보전일변도의 박물관적 보전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측면에 있어서 활용가능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한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장차 역사도시로 대표되는 공주와 부여의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역사적 흔적을 갖고 있는 지역, 장소, 그리고 건축물이 보존일변도의 박물관적 보존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같이 살아 숨쉬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전제하에 출발한다.

충청남도의 공주시와 부여군이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함과 동시에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도시 나아가서는 창조적 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그 활용가능 잠재력을 분석코자 한다.

둘째, 충청남도 역사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은 대부분 삼국시대 백제의 역사문화자원이 대부

---

3) 모장진(2000), 역사환경을 고려한 도시문화재주변 도시설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p9

4) 김봉한외 7인(2006), 백제고도 공주·부여의 역사성 보존과 도시개발의 조화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9권 제3호,p95.
지역의 문화재의 원형보존보다는 새로운 활성화 차원의 정책사업을 요구하는 응답으로 공주의 경우 62.2%, 부여의 경우 54.3%의 비율로 응답하였다.

분으로 문화재 속성상 단순 및 원형 보존형태에 그치고 있으며, 그 분포 양상이 대부분 현재의 도심부에 밀집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도심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의 일환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재생사업의 추진이 예상된다. 충청남도의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심활성화 사업시 공간적 관계와 기능을 활용하는 사업이나 도시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시 기초자료 및 계획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공간적으로는 충청남도의 공주시와 부여군의 중심시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시간적으로 과거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시대와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역사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문화자원와 관련된 보전과 활용적 측면에서의 관련 문헌을 조사한다. 역사문화자원의 개념 및 주요 내용,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 방법을 검토한다.

둘째, 위에서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의 틀로 설정하고, 충청남도의 공주시와 부여군을 사례로 보존・활용실태를 분석한다. 역사문화 자원의 보전・활용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구체적인 역사문화자원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백제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공주・부여의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는 예비조사단계로서 관련 문헌 및 유관기관[5]에서 발간,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기초조사목록을 작성한다.

다음은 '현장조사단계' 로서 목록에 의거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조사자료와 비교・검토 보완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평가단계'로 현장조사를 거쳐 추출된 주요 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서 실태분석 및 특성을 파악한다.

5) 문화재청, 충청남도청, 시청, 군청 등

## 3. 연구의 과정

본 연구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고, 각 장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이론과 개발유형 및 전략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충청남도 역사도시의역사문화자원의 현황과 활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공주시와 부여군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자원의 분포현황, 보존 및 활용현황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하고, 도시활성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기능하기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각장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의 요약과 필요한 정책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진행과정

| 연구과정 | 세부연구내용 | |
|---|---|---|
| 연구개요 | 연구배경과 목적 | · 연구 배경 및 목적<br>· 연구 범위 및 방법 |
| 선행연구 검토 | 역사문화자원의 개념 및 보전활용 방안 | · 역사문화자원의 개념 및 대상<br>· 역사문화자원 보전 활용 방법 |
| 역사문화자원 보전 · 활용 실태 |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실태 | · 역사문화자원 기초목록 작성<br>· 역사문화자원 주요 대상 추출<br>·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보전활용실태 분석 |
| 활성화방안 | 기본방향 및 전략 | · 역사문화자원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br>· 추진방안 |
| 결론 및 정책건의 |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제언 | |

## 4. 선행연구의 검토

역사도시와 관련된 기존 연구의 흐름은 우선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도규제를 위한 연구가 1990년대 이전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도시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된다. 또한, 역사문화도시로서 고도보존법의 적용에 따른 관련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최근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선진사례 비교연구와 도시재생전략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역사문화도시자원을 활용한 도시발전방향을 밝히는 연구와, 고도보존법에 관련된 계획특성 및 선진사례 비교연구,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슈화되고 있는 도시재생측면에서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로 크게 나뉜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발전 방향을 정립하는 연구는 온영태(1993)[6], 박병식(1999[7]), 송준철(2001)[8], 신유승(2002)[9], 이영범(2005)[10], 최형오(2005)[11], 채미옥(2007)[12] 등이 있으며, 대부분이 시대적인 계획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재평가와 이를 활용한 도시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 고도보전법 및 경관법과 관련하여 역사문화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로서는 정성태(2000)[13], 강태호(2001)[14], 김란기(2005)[15], 안유정(2006)[16], 조용기(2006)[17], 문화재청(2007)[18]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내용은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문화재보호법, 국토계획법, 고도보

---

6) 온영태(1993), 역사도시의 현재와 미래 : 부여의 역사성회복과 도시개발의 전략, 도시문제 제28권 제301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7) 박병식・이종렬(1999),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이 경주시 도시계획발전방안 : 전략적 도시계획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경주문화연구, 경주대 경주문화연구소.
8) 송준철(2001),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광주도심 정비계획,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9) 신유승(2002),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통한 도시공간 재구성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0) 이영범(2005), 도시담론으로서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전략을 통한 도시재생, 문화정책논총 제 17집,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1) 최형오(2005), 문화중심도시에서의 역사문화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12) 채미옥(2007),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방안, 백제문화 대토론회,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13) 정성태・조세환・오휘영(2000), 한국과 일본의 역사도시 경관관리 법규의 비교, 한국조경학회지 제28권 제3호
14) 강태호・신재범(2001), 사적지구의 경관보존 및 관리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제 10권
15) 김란기(2005), 경관법 체제하에서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전략,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 안유정・이만형(2006), 역사문화보존지구를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인 환경 조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제11권.
17) 조용기(2006), 고도의 역사적 경관 보존・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제30권 제1호
18) 문화재청(2007), 고도보존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 문화재청

존특별법상, 경관법상의 관련 법내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관련법 및 제도의 개선과제,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및 도심재생 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분야로 김홍기(2004)[19], 이일(2005)[20], 조성태(2006)[21], 김영환(2008)[22], 변항기(2006)[23], 백선영(2007)[24], 김선태(2007)[25], 오덕성(2007)[26], 이정형(2008)[27] 등에서는 외국사례를 검토하되, 개발유형 및 도심재생 전략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의 역사도시를 사례로 역사문화자원의 분포 및 보존·활용실태를 파악하였고, 단순 보전이 아닌 창조적 보전을 위한 주요 계획내용을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이론연구측면에서는 현재까지 검토된 역사문화자원 활용 및 개발에 대한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각각에 대한 주안점과 계획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실증연구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적 측면에서 충청남도의 역사도시를 사례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실태 분석하여 특성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19) 김홍기(2004), 역사적 도심재생의 계획특성에 관한 분석,
20) 이일(2005),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 도심부 문화재 주변의 역사경관 관리 계획안
21) 조성태(2006), 일본 가나자와의 역사문화경관 관리 특성
22) 김영환(2008), 성장관리형 도심재생 가이드라인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제8호
23) 변항기(2006), 구도심 재생을 고려한 복합문화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24) 백선영(2007), 역사문화지역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25) 김선태(2007), 역사도시에서 전통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리모델링 및 관리방안 연구
26) 오덕성(2007),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제7권 제6호.
27) 이정형(2008),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도심부 디자인 컨트롤 수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제6호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구분 | | 연구명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 내용 |
|---|---|---|---|---|---|
| 주요선행 | 온영태 (1993) | • 부여의 역사성 회복과 도시개발의 전략 | • 부여의 역사성 회복과 도시개발 방향 고찰<br>• 향후 검토사항 제시 | • 문헌조사<br>• 추진현황검토 | • 부여의 역사성 회복<br>• 역사와 연계한 신 도시개발 전략 수립<br>-도로망 및 신시가지 조성<br>-역사자원 복원 및 관광자원화<br>-기존시가지 정비 |
| | 박병식 (1999) | •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경주시 도시계획발전 방안 | • 경주시 SD (Sustainable Development) 개발<br>• 전략적 도시계획 및 집행 모형 구축 | • 문헌 및 사례조사<br>• 전략적 도시계획에 의한 경주시 도시계획평가 | • 새로운 전략적 도시계획접근방법 필요<br>-도시계획·재정·정책이 결합된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br>-역사보존과 자연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
| | 송준철 (2001) | •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광주 도심 정비계획 | • 역사·문화유산 보전·활용을 통한 도시정비계획 및 지침 설정 | • 문헌 및 사례조사 | • 역사성을 고려한 지구 개발 방향 제시<br>-쇠퇴 도심 활성화 방안<br>-보행네트워크 체계 구축<br>-도심이전적지 및 근대건축물 활용방안<br>-역사·문화성을 고려한 도심정비 기준 제시<br>-특화된 개발방안 제시 |
| | 신유승 (2002) | •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통한 도시공간 재구성 방안 연구 | •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실현 | • 문헌 및 사례조사<br>• 도시공간 구상안 제시 | •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통한 도시정비방안 제시<br>-도시공간 재구성 및 개발 필요성<br>-성곽을 통한 도시정비<br>-지역별 공간 계획안 제시 |
| | 최형오 (2005) | • 문화중심도시에서의 역사·문화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 •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제안 | • 문헌 및 현장조사 | • 도시문화 활성화 전략 제시<br>-도시계획 차원의 역사환경 보존계획 수립<br>-도시기본계획 상 문화계획 수립<br>-역사자원의 인식전환 |
| | 정성태 (2000) | • 한국과 일본의 역사도시 경관관리 법규의 비교 | • 한국과 일본의 역사경관관리제도 비교<br>• 역사도시 경관관리 법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 • 문헌조사<br>• 사례도시 조사 (한국 경주, 일본 나라시) | • 일본 사례 검토 후 특징 및 시사점 제시<br>• 역사도시 경관관리 특별법 제정 필요<br>-역사도시경관관리계획 또는 지침 수립 필요<br>-역사도시경관관리 심의위원회 등 심의 기구제도 활성화 필요 |
| | 강태호 (2001) | • 사적지구의 경관보존 및 관리방안 | • 경주 남산경관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 연구 | • 문헌 및 현지조사<br>• 관련법 검토 | • 경관보존을 위한 체계 확립<br>-도시재정비계획 수립 필요<br>-법적 체제에 따른 지속적 연구 수행<br>-계획 평가 실시 |

| 구분 | 연구명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 내용 |
|---|---|---|---|---|
| | 김란기 (2005) | • 경관법 체제 하에서 역사문화유산의 보전 전략 | • 경관법 본질 파악 및 역사문화유산 보전 방향 제시 | • 문헌조사 | • 국내 경관법에서 역사문화유산 보전 전략 검토 및 방향 제시<br>• 역사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세부적 수법 제시 |
| | 안유정 (2006) | • 역사문화보존지구를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인 환경조 | • 사합원의 도시 보호와 개발 측면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 문헌 및 사례조사<br>• 중국 사례 조사 | • 역사문화보본지구의 가치 인식과 필요성 도출 |
| | 조용기 (2006) | • 고도의 역사적 경관 보존·정비에 관한 연구 | • 일존 고도보존법의 특징 분석 및 성공요인 도출<br>• 향후 국내법 보완 및 개선 방향 제시 | • 문헌 및 사례조사<br>• 관련법 검토 | • 일본법 검토 후 특징 및 시사점 제시<br>-보존지구 지정대상지 선정 기준<br>-특례법 제정 필요성<br>-국고보조율 및 보조여부 명시<br>-보존·정비사업 주체 확립(지방자치단체) |
| | 문화재청 (2007) | • 고도보존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 | • 고도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침체된 고도지역을 활성화하고 생활환경 개선 | • 문헌 및 사례조사 | • 고도지역 내 자료를 집대성하여 기초 DB 구축을 통한 고도지역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br>• 고도관리방안 도출 및 종합적 지구지정(안) 작성으로 고도보존 효과 극대화<br>• 주민이익 보장 및 자발적 참여 유도 |
| | 백선영 (2007) | • 역사문화지역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 설정 방안에 관한 연구 | • 국내 역사문화지역 보전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 설정 | • 문헌 및 사례조사 | • 역사문화지역의 가치평가 기초연구 제시<br>-건축시기<br>-보전상태<br>-군집정도<br>-사용용도 |
| | 김선태 (2007) | • 역사도시에서 전통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리모델링 및 관리방안 연구 | • 역사도시에서의 전통적 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기법 연구 | • 문헌 및 사례조사 | • 경관관리로서 건축리모델링<br>-경관요소별 특성 및 전체적 기준 제시<br>-건축물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및 배치 |
| | 오덕성 (2007) | •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에 관한 연구 | •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 특성 분석<br>• 국내 도시재생 시사점 도출 | • 문헌 및 사례조사<br>• 사례도시 조사 (빌바오시, 요코하마시) | •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 국내도입 시사점 도출<br>-문화적 자원 발굴 및 활용방안 마련 필요<br>-국내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적용 가능성 검토<br>-주변지역과의 연계전략 수립 필요<br>-물리적환경개선 및 간접적 사회적 효과 도출 필요 |

| 구분 | 연구명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연구결론 |
|---|---|---|---|---|
| 이정형 (2008) |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도심부 디자인 컨트롤 수법에 관한 연구 | • 샌프란시스코 도심부 경관관리수법 고찰<br>• 국내 도심부 경관관리 시사점 및 관리방안 제시 | • 문헌 및 사례조사<br>• 사례도시 조사 (빌바오시, 요코하마시) | • 국내 도심부 경관관리 시사점 도출<br>-도심부공간 및 경관관리 비젼과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시 필요<br>-디자인심사제도 확립 필요<br>-역사적 건축물과 역사지구에 대한 차등적 관리방안 수립 필요<br>-심사과정의 투명성과 심사위원 및 시민간 협의과정 필요 |
| 본 연구 | | • 공주부여의 역사문화자원 보전활용실태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 • 문헌조사<br>• 현장조사 | • 공주·부여의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실태 조시<br>• 현장에 기반한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제시 |

# 5. 용어의 정의

21세기 접어들어 문화가 도시의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문화재, 역사도시, 문화도시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으며, 고도보존법에 의한 고도도 역사도시로 지칭되고 있다.

고도, 역사도시, 문화도시는 '문화'를 기본전제로 한다는 점과 광역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추구하는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 1) 문화와 문화재

'문화'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28]

문화재란 조상들의 모든 지혜가 동원된 결과물인 문화가 유형·무형의 실체로 남아있는 것이 문화재이고, 역사문화자산이다. 문화재란 문화가치가 있는 사물, 즉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

28) 국립국어원, 2007.

는 민족문화유산을 말한다.[29]

장호수(2006)는 문화재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빚어낸 것으로 사람이 주체가되고 자연 또는 자연물이 객체가되어 이루어진 문화의 산물이다. 각 나라와 민족이 전통가치에 따라 각기 독특한 문화를 가꾸고 이어오면서, 전통에 따라 문화재에도 민족정서와가치관이 들어있게 된다. 따라서 문화재는 전통문화의 산물이며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것이다.[30] 라고 종합정리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31]

### 2) 고도와 역사도시

역사도시와 고도는 광의로는 문화도시에 속한 것으로서, 문화도시중에서 특히 역사문화환경의 비중이 높은 도시를 역사도시 또는 역사문화도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도를 역사도시와 동일시하거나 고도의 개념을 역사도시 개념으로 확장하자는 논의가 있다.[32]

고도는 역사문화자산의 유무만이 아니라 한나라의 정치적 중심지로서 도읍지의 기능을 했던 지역이다. 고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신문화의 상징이며, 문화적・역사적 고향으로서 문화적・민족적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지역이다.

「고도보존특별법」에서는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가진, 경주, 부여, 공주, 익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33]

세계역사도시연맹규약에서는 역사도시를 '인류의 지혜가 만들어낸 자산', '각각의 역사를 스스로 자랑할 만한 개성으로 지키고 육성하는 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도와 역사도시와의 개념에 있어서 고도를 기반으로 역사도시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데,

---

29) 남궁승태(1997),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역사문화환경.
30) 장호수(2006), 문화재학개론, 백산자료원, P10.
31) 문화재보호법 제2조
32) 문화재청(2007), 고도보존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 문화재청,p35.
33) 고도보존특별법 제2조

이는 일본의 경우, 현재의 고도의 개념을 일반적인 역사도시의 개념으로 확장하는 추세에 있다.[34] 이렇게 고도보존사업의 확장에 따른 도시의 정체성 확립에 따라 역사도시로 그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도시는 '고도'라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과거에 적어도 한나라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국가중심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 3) 문화도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고 도시공간의재생과 정비, 친환경적인 도시조성, 매력적인 도시경관 조성과 산업구조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하나의 전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도시'가 하나의 용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학술적으로 멈포드는 '사회적 유산이 집중되어 있고 끊임없는 사회적 교류와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인간의 모든 복합적인 활동의 고차원적 잠재력을 제고시켜줄 수 있는 도시'라고 하였으며, 김원배는 '도덕적 정당성이 정립되어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된 도시, 이질적인 가치나 생활유형이 수용되는 다양성이 보전된 도시, 광의의 문화자원이 발굴·육성된 도시'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문화도시란 역사성을 바탕으로 자기정체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며, 공공성이 확장되고 보장되는 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35]

문화도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2001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에서 문화도시를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부터이다. 그후 각 부처에서는 전국 차원의 문화성장거점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중심도시사업을 계획하여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경주역사문화도시', '부산영상산업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 도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36]

이러한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할 요건을 '역사성과 정통성', '공동체성', '도시

34) 일본에서는 「고도보존법(1966)」에 의거하여, 일본 고대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역사상 중요한 의의를 지닌 시군읍면지역(교토시, 나라시를 포함한 10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35) 송인호(2004) 서울의 옛 도시조직과 새로운 도시건축, 2004 도시세미나 도시속의 건축 도시속의 주거, 건원, p126.
36) 시범도시에 대해서는 시범도시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이하,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하(보상비 제외)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유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9조)

미학',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등이 제시되고 있다.[37]

역사성과 정통성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유산과 전통적인 문화가 오랜시간을 통해 도시 곳곳에 묻어나야 하고, 도시공간의 구조와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속에 보존되어야 한다.

둘째, 유기적인 문화 인프라와 문화정책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을 수 있는 문화 인프라와 지역문화를 만들고 문화생산자 및 문화 소비자 등이 문화와 예술의 체험과 다양한 행위를 통해 도시의 공간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

셋째, 개성적이며 특징적인 문화공간과 도시경관이 있어야 한다. 다른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 도시만의 문화적 개성과 특징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다.

37) 추용욱 · 강준모 · 황기연(2006),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회,pp84-85

# 제2장 관련 이론 검토 및 분석 틀 설정

## 1. 관련이론 검토

### 1) 역사문화자원의 정의 및 요소

（1）역사문화자원의 정의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건조물・유적등과 주위의 자연환경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38] 이와같은 건조물・유적 등은 주변의 경관을 제외할 경우 존재의미가 없어져 동산문화재와는 다른 개념으로 역사적 문화환경이라 한다.

역사문화자원이란 단순한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생활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직접적인 의미를 갖게하고, 동시에 미래 도시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되게하는 데  일반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39] 즉, 역사문화자원은 역사문화환경에서 일컬어지는 도시문화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일컫는다고 할

38) 김선태・손승광・김인호(2007), 역사도시에서 전통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리모델링 및 관리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p216.
39) 모장진(2000), 역사환경을 고려한 도시문화재 주변 도시설계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랜시간의 흐름속에 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문화가 축척되어 존속되어지는 활용적 가치가 있는 자원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코자 한다.

### (2) 역사문화자원의 요소

역사문화자원의 기본은 네 가지 요소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40]

첫째, 역사적 요소이다. 사회문화사, 건축사 등 역사적 정체성으로써의 역사적 측면에서 어떠한 가치 및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문화적 요소이다. 정서적 측면·건전성, 문화행사와 여타 자원과의 연계성으로 보아 문화적 측면에서 어떠한 가치 및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 미적 요소와 아름다움 등 경관적 측면에서 어떠한 가치 및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자연적 요소이다.

넷째, 경제적 요소이다. 이것은 관광문화상품의 개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가치 및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표 2-1〉 역사문화자원의 요소[41]

| 구분 | 주요대상 |
|---|---|
| 경관자원 | 산, 구릉, 하천, 수로 등 |
| 전통역사자원 | 관영건축, 유교건축, 유물, 유적, 사지 등 |
| 근대역사자원 | 공공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상업·금융시설, 의료시설, 산업시설, 기타시설 |
| 문화자원 | 박물관, 문화시설, 국악 등 |
| 경제자원 | 시장민속상품 |
| 무형자원 | 축제 및 문화제, 민속놀이 등 |

40) 전준호(2005), 고도 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
41) 오세경(2001), 공주시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유형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6권 5호, p228.

## 2) 역사문화자원 정비 및 활용방법

### (1) 역사문화자원 보전대상 판단 기준

역사문화자원의 정비 필요성은 크게 도시경관의 다양성 부여, 도시의 역사성 부여를 통한 도시생활의 풍부 제공, 도시활성화의 자원으로 활용가능성의 3가지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다.[42]

도시경관적 측면에서는 도시의 다양하고 흥미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획일화된 도시환경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논의되며, 역사성부여를 통한 도시생활의 풍부함을 고려하는 것은 사람들이 역사도시가 갖는 고유한 매력, 도시의 형성과 사상 및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역사성을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다. 도시활성화로서의 자원적 가치에 있어서는 미래의 도시공간형성에 기본적인 골격을 제시하고 옛 도시가 남긴 하나의 유산으로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재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언급된다.

이러한 역사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의 보전대상은 자연자원부터 일개 건축물의 부속품까지 모든 자원을 일컬을 수 있다. Wayne O. Attoe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대상을 가로경관과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는 건축물이나 건조물로 정리하였다.[43] 도시는 성장과 변화가 끊임없이 지속되며 도시는 과거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 지구나 주변과 강한 경계를 형성하여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지구들은 그들의 과거 생활이나 건축양식의 표본으로 보전되기 때문이다.[44]

오덕성・문홍길(2000)은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가치판단기존으로서 5개의 기준을 제시하였다.[45]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가치판단기준으로서 그 첫째는 계층이나 유형을 반영하여야 한다다는 전형성(Typical)이다. 건축적으로는 뛰어난 건물이나 도시환경이 아니더라도 가끔 계층

---

42) 김혜란(1995), 도시재개발에 있어 역사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박사과정 세미나 자료, p6.
43) Wayne. O. Attoe(1979), Historic preservation in Anthony J. Catanese・James C. Snydered, Introduction to urban planning, McGraw-Hill.
44) 모장진(2000), 전게서,p10
45) 오덕성・문홍길(2000), 도시설계, 기문당, p180

이나 유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하여야 한다.

둘째는 희소성이다. 해당 종류서 유일하거나 건축양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물 역시 보전의 대산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는 역사성이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건물이나 도시환경은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일상적 생활사이의 상징적인 연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보전되어야 한다.

넷째는 우위성이다. 몇몇 자원들이 최상의 것 혹은 가장 큰 것등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보존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상징성이다. 건물이나 지구를 이루는 역사문화자원들은 그들 집단의 독자성을 물리적으로 표현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시대를 이해하고 자신의 독자적 특성을 계승하기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

최근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근대 산업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근대문화자원중 산업유산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강동진(2005)[46]는 지역적가치, 원형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기준으로 역사문화자원을 추출하는 기준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적 가치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과 체험의 정도를 추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한 역사문화자원의 원형전 잔존여부를 원형적 가치로 제시하였고, 역사성에 기반한 인식정도를 역사적 가치로 제시하였다.

### (2) 역사문화자원 보전 방법

이론적으로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존방법에 대한 Attoe에 의하면 크게 6가지[47]로 나눌 수 있으나, 이를 세분하여 구분하면 크게 범위적 측면과 방법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보전 범위에 따라서는 첫째, 절대보존이다. 이것은 원형 보존을 절대가치로 하는 동결보존 방식이다.

둘째, 내부개조는 허용하되, 외관(재료포함)은 원형 보존하는 외부를 보존하는 방식이다.

---

46) 강동진외 3(2005), 부산시 건설산업유산의 실태분석,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 40권 제6호, p98

47) Wayne. O. Attoe는 보존(Preservation, 복원(Restration), 지구수복과 수리(Rehabilitation & Renovation), 보전(Conservation), 복제(Replication), 이전(Reloc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셋째, 내부기능 및 외관의 부분적인 개조는 허용, 구조방식은 보존하는 구조보존과 외형의 구조 등 물리적 형태의 개조는 허용하나 기능적 내용을 보존하는 기능 보존이 있다.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보존형태로서 역사 문화적 분위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역사문화적인 내용이 표출되어야 하며, 가로(線) 및 지역(面)의 보존에서 고려대상이 되는 분위기 보존이 있다.

방법적 측면으로는 보존, 보수, 복원, 재생 등이 있다.

보존(Preservation)은 문화재의 보수나 보강 등이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 원형을 유지하려는 조치를 말하고 보수(Repair)는 문화재의 물리적 성능저하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복원(Restoration) 은 보존방법의 하나로서 손실된 역사문화유산을 원래의 형태대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재생(Renovation)은 문화유산을 현재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단지 하나의 역사유산이 아니라,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과거와 현재, 역사유산과 일상생활의 양쪽을 조화롭게 구현코자 하는 것이다.

활용적 측면은 보존적 활용 (역사분위기 체험프로그램) 이 있는데 이는 각 역사 문화환경의 성격에 부합되는 개성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다 활동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표 2-2〉 역사문화자원 정비 및 관리방법

| 구분 | 방법 | 내용 |
|---|---|---|
| 범위적 측면 | 절대보전 | -보존과 유사 개념으로 원형의 보존을 절대가치로 하는 동결보존의 방식을 취함 |
| | 외형보전 | -현실적인 기능을 위한 내부의 개조는 허용하되, 외관(재료포함)은 원형을 보존함(일명, 양식적 보전) |
| | 구조보전 | -내부기능이나 외관의 부분적인 개조는 허용하되, 구조방식은 보존 |
| | 기능보전 | -외형과 구조등 물리적 형태의 개조는 허용하면서 기능적인 내용을 |

| | | |
|---|---|---|
| | | 보존 |
| | 맥락보전 | -최소한의 보존형태로서 역사문화적 분위기를 표현, 가능한 한 역사문화적인 내용이 표출되어야 함 |
| 방법적 측면 | 보존 (Preservation) | -동결 보존의 개념으로 현재의 물리적·미적 상태를 그대로 유지·관리하면서 어떠한 것도 첨가하거나 삭제되지 않는 것임 |
| | 보호 (Protection) |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또한 보존을 위한 방책을 포함 |
| | 복원 (Restoration) | -역사자원을 원형대로 되돌려 놓는 일로, 최근들어 주변과의 조화를 꾀하는 복원이 늘어나는 경향 |
| | 재생 (Renovation) | -역사자원을 현재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한 방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은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과거와 현재, 역사유산과 일상생활의 양쪽을 조화롭게 구현코자 하는 것임 |
| | 재건 (Reconstruction) | -직접적으로 역사자원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행위라기 보다는 역사자원이 갖는 이미지나 공간의 기법을 새롭게 계승하고자 하는 행위임 |
| | 용도전환 (Conversation) | -기존의 건물에 새로운 기능이나 용도를 적용하는 것 |
| | 복제 (Replication) | -이전의 역사자원을 모방하여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 기존 건물 사이의 단절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됨 |
| | 이전 (Relocation) | -역사자원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 |
| | 활용 (Utilization) | -보전적 활용(문화시설, 문화축제, 역사분위기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시설의 이용 및 분위기의 체험기회를 부여하는 내부기능을 새로이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나 각 역사문화환경의 성격에 부합되는 개성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다 활동적인 체험프로그램을 포함 |

### (3) 역사문화자원 정비 방법의 변화

역사문화자원을 보는 시각은 크게 점과 그 주변과 면과 그 내부로 크게 나뉜다. 점과 그 주변은 점으로 존재하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단일 문화재만을 중점 보호하던 협의의 보존개념에서 탈피하여 단일 문화재 주변의 일정지역을 보존대상에 포함하여 문화재와 그를 둘러싼 주위 일체로 관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48]

면과 그 내부를 보는 시각은 개별적으로는 가치가 크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집단을 이루고 자연환경 등 주위환경과 조화가 됨으로서 역사적, 학문적 또는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의 당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생활 및 산업활동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49]

역사문화자원의 보전방법은 대립적인 해결방법, 주변환경과 연계시키며 점진적으로 변신시키는 방법, 점적 역사환경의 연계를 통한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

첫째, 대립적인 방법은 역사환경과 현대건축물과의 관계에 대한 도시 및 건축가들의 역사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건축적인 제안을 수반하여야 한다. 그것은 상호간의 관계를 더 상승시키는 차원에서의 대립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일종의 반어적인 방법으로 역사문화환경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둘째, 주변환경과 연계시키며 점진적으로 변신시키는 방법은 역사문화환경의 내용과 모습이 주변의 현대건축과 연계되며 점진적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과거가 현대 그 자체로 개체적인 변식을 하는, 즉 탈바꿈을 하게 하는 새로 개입된 건축매개체를 통하여 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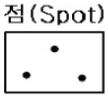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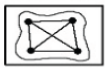
셋째, 점적 역사문화환경의 연계를 통한 방법이다. 70년대 중반이후, 박제된 점의 문화재 보보존으로부터 문화재의 연계성을 고려한 면으로서의 역사환경 보전 대책과 활용방안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각 한정된 기능을 가진 점의 문화재를 면으로 선(루트)화 함으로서 중첩시킴과 동시에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보전시키는 방법이다.[50]

---

48) 김정원(2004), 서울도심 문화재 주변지역의 면적관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9) 모장진(2000), 역사환경을 고려한 도시문화적 주변 도시설계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PP.13-14.
50) 김홍식(1992), 도심의 역사적 경관보전, 대한건축학회지 제36권 제1호, P50.

현재 역사문화자원의 보전방법은 점에서 선, 선에서 면으로 확산되는 면적인 보전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점적인 보존 정비는 역사자원에 대해서 기반형성기에 개별 역사자원의 발굴 및 보존에 치중하고 있으며, 선적인 정비는 역사문화자원을 대상으로 선형적 연계를 통한 가로경관정비를 도모하는 형태이다. 면적인 개발은 도시개발 단계로 도시계획적 차원의 권역 개발 및 역사문화도시 이미지를 창출하는 단계이다.[51]

〈표 2-3〉 역사문화환경의 발전 단계[52]

| 개 념 | 대 상 | 단 계 | 유 형 구 분 | |
|---|---|---|---|---|
| 점(Spot)  | 역사자원 | 기반 형성기 | 개별역사자원의 발굴 및 보존 | 보존 정비 |
| ⇩ | | | | |
| 선(Line) | 문화환경 | 육성 및 정착기 | 선형적 **연계**를 통한 가로경관정비 | **연계성 개발** |
| ⇩ | | | | |
| 면(Area)  | 도시개발 | 부흥발전기 | 도시계획적 차원의 권역 개발 및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창출 | 이미지 창출 |

51) 이호정(2008), 역사도시 공주의 건축문화 콘텐츠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제2호 통권 29호,P13

52) 상게서, P13.

## 2. 분석의 틀 설정

### 1) 조사・분석 방향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역사문화자원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문화재를 비롯한 자연자원부터 건축물의 부속물까지 그 범주에 해당하는 요소가 광범위하므로, 보존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요 대상물을 추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앞서서 논의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의 틀로 제시코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목록을 작성한다. 목록 작성시에는 문화재청, 충남도청, 공주시청, 부여군청에서 발간,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종합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두 번째 단계는 보전 및 활용가능한 주요대상을 추출한다.

세 번째 단계는 주요대상에 대한 보호적 단계와 활용적 단계로 접근하여  두가지 방향으로 설정하였다.[53]

역사문화자원의 보호적 접근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국가의 법 및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는 일련의 행위외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서도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한다는 데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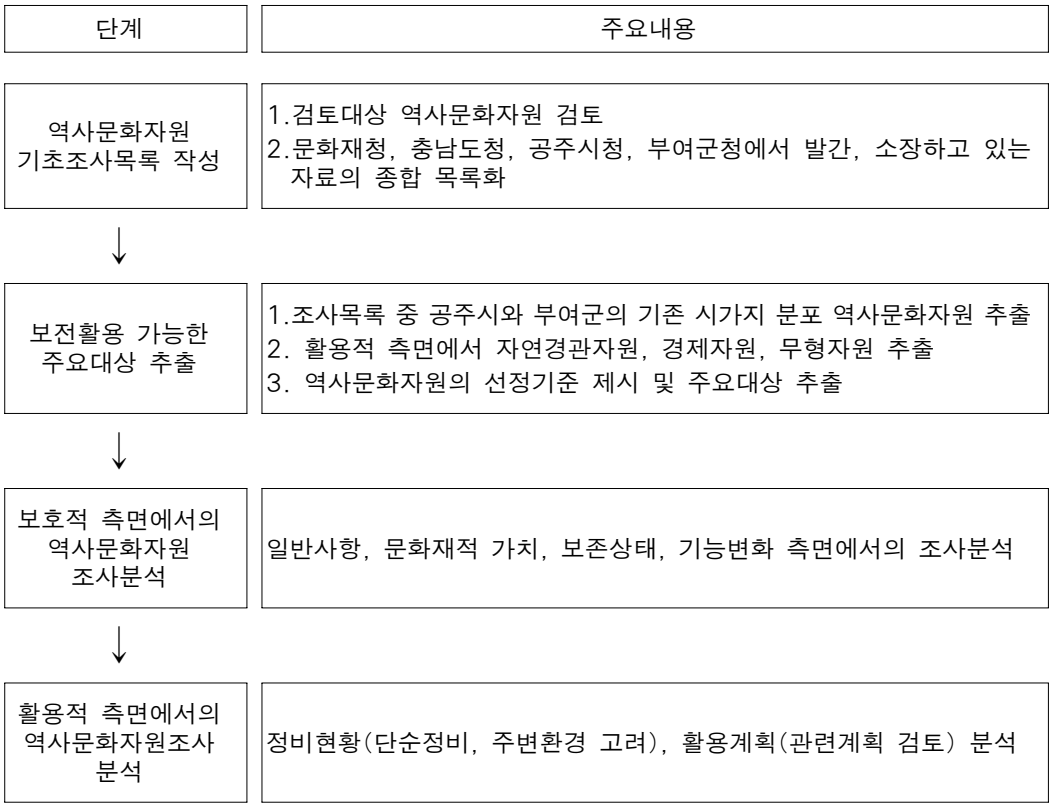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적 측면은 살아숨쉬는 유기체와 같은 측면에서의 도시계획적 접근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도시계획상 논의되고 있는 성장관리형,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이라는 패러다임이 변화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측면에 맞추어 활용단계별로 접근하였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인 바, 모든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의 개발유형과 개발전략이 모든 역사문화자원에게 적용하기는 곤란하겠지만, 한 지역에서 하나의 개발유형이나 전략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지역이 가진 문화자원 각각의 이미지에 따라 개발유형과 전략을 복합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53) 김기호(2004), 도시 역사환경 보존-면적 보존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13권 4호, p.157.

〈그림 2-1〉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조사・분석 절차




## 2) 단계별 분석의 틀 설정

### （1）역사문화자원 목록화 단계

우선 역사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요소, 문화적 요소, 미적요소, 경제적 요소에 의한 역사문화자원의 요소를 도출한다. 목록화를 위한 역사문화자원은 경관자원과, 전통역사자원, 근대역사자원, 문화자원, 경제자원, 무형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이러한 종합화는 오세경(2001)[54]의 연구를 준용한다.

54) 오세경(2001), 공주시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유형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6권 5호, p228.

〈표 2-4〉 검토대상 역사문화자원의 분류 기준

| 구분 | 주요대상 |
|---|---|
| 경관자원 | 산, 구릉, 하천, 수로 등 |
| 전통역사자원 | 관영건축, 유교건축, 유물, 유적, 사지 등 |
| 근대역사자원 | 공공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상업·금융시설, 의료시설, 산업시설, 기타시설 |
| 문화자원 | 박물관, 문화시설, 국악 등 |
| 경제자원 | 시장민속상품 |
| 무형자원 | 축제 및 문화제, 민속놀이 등 |

### (2) 보전·활용가능한 역사문화자원 선정 단계

목록화된 역사문화자원을 기초로 하여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쉬운 공주시와 부여군의 기존 시가지에 분포하는 역사문화자원을 우선 추출한다. 또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기초자원목록에서 파악된 자연경관자원, 경제자원, 무형자원은 보전활용가능한 역사문화자원 선정에서는 제외토록 한다.

이러한 이유는 역사문화자원의 범위가 경관자원, 전통역사자원, 근대역사자원, 문화자원 등으로 광범위하고 많은 수의 자원들이 일정 공간 안에 산포되어 분포하므로, 이중 활용가능한 자원을 선별하기 위해서이다. 즉, 역사문화자원의 주요대상 추출은 보전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바, 선행연구의 보전대상을 추출하는 근거로 제시한 기준[55]중에서 포괄적 기준을 제시한 강동진(2005)의 근거하여 주요대상을 추출한다.

55) Attoe는 가로경관, 건축물, 건조물, 오덕성·문홍길은 전형성, 희소성, 역사성, 우위성, 상징성, 강동진은 지역적 가치, 원형적 가치, 역사적 가치로 구분하여 정성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2-5〉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선정 기준

| 구분 | 제시 기준 | 선정유무 |
|---|---|---|
| Attoe | 가로경관, 건축물, 건조물 | |
| 오덕성・문홍길 | 전형성, 희소성, 역사성, 우위성, 상징성 | |
| 강동진 | 지역적 가치, 원형적 가치, 역사적 가치 | ○ |

(3) 보전・활용가능한 역사문화자원 분석 단계

역사문화자원의 보전범위 판별을 위한 보전유형 분석은 오세경(2001)은 역사성・인지현황・보존현황・정비현황・활용계획을 조사하였고, 활용적 측면에서 보전유형을 분석함에 있어서 점・선・면의 개념을 도입하여 절대보전, 기능보전, 맥락보전, 외형보전으로 범위를 구분하고, 방법은 보전방법은 보호, 재건, 복원, 이전, 재생, 활용으로 구분하여 활용가능한 자원을 제시하였다.

강동진(2005)은 일반사항, 보존상태, 특기사항, 문화재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일반사항은 조성시기, 구조양식에 관한 일반적인 개관이며, 보존상태는 원형과 비교한 현재의 상태를 말하며, 훼손, 부분훼손, 양호등으로 세분하여 조사・분석한다. 특기사항은 조사대상의 원기능과 관련된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능적 변화를 일컫으며, 문화재적 가치는 조사대상의 문화재 지정 여부를 조사한다.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측면에서의 분석은 일반사항(시기, 구조), 문화재적 가치(지정문화재 지정 유무), 보존상태(원형보전, 부분훼손, 훼손, 양호), 기능변화(현재 기능, 기능변화 유무)로 설정하고, 활용적 측면에서는 정비현황과 활용계획 유무를 판별하여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전・활용방안[56]을 결정토록 한다.

56) 제3장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그 활용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며, 제4장에서는 이를 활용한 도시적 측면에서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논의는 제4장에서 기술한다

〈표 2-6〉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보전·활용을 위한 조사분석 내용

| 구분 | 조사분석 내용 | 비고 |
|---|---|---|
| 보호적 측면 | 일반사항 : 시기, 구조<br>문화재적 가치 : 문화재 지정 유무<br>보존상태 : 원형 보전, 부분훼손, 훼손, 양호<br>기능변화 : 현재기능, 기능변화 | |
| 활용적 측면 | 정비현황 : 단순정비, 주변 환경 고려<br>활용계획 : 관련계획 검토 | |

보호적측면에서의 일반사항의 항목은 시기와 구조로서 문헌에 근거하여 건축년도로 시기를 구분하였으며, 구조는 현재 상태에서 건축된 구조를 판별하였다.

문화재적 가치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문화활동의 소산으로 그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유무를 검토하였다. 문화재는 종류와 가치에 따라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무형문화재·중요민속자료·보호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바, 이러한 문화재는 조사와 발굴뿐만 아니라 복원과 복구, 올바른 관리와 보호, 그리고 전시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등이 필요하므로, 이에 적합한 문화재적 가치를 검토하였다.

보존상태는 3가지로 구분하였는 바, 원형보전은 기존의 역사문화자원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 또는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복원을 통하여 원형적 가치가 남아 있는 자원을 선정하였고, 부분훼손은 일정부분에 있어서 훼손이 가해진 상태로 그 원형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였다. 훼손은 외형적·구조적 측면에서 그 훼손정도가 심각하여 보수 및 복원을 요구하는 상태로 하였고, 양호는 활용을 위해서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한 상태를 검토하였다.

기능변화는 2가지로 구분하였는 바, 기존의 대부분의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현재의 활용에 중심을 두고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현재기능을 검토하였고, 기능변화는 근대건축물 또는 활용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구조물의 경우 현재 이용되는 기능을 검토하였다.

활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정비와 활용측면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는 바, 정비현황에 있어서는 문화재로서의 단순 가치에 있어 문화재만 정비하였는지, 또는 문화재 주변까지 포함하여

경관적 측면에서 정비를 하였는지를 판단하였다. 활용계획은 현재 공주와 부여의 대부분의 역사문화자원이 단순 정비에서 벗어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코자 노력코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해당 활용계획의 유무 그리고 활용현황을 파악하였다.

# 제3장 충청남도 역사도시의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실태분석

## 1. 역사문화자원의 현황

### 1) 역사문화자원 일반 현황

（1）역사문화자원 개요

공주와 부여의 역사문화자원은 위에서 서술한 전통역사자원, 근대역사자원, 문화자원, 무형자원으로 구분하여 주요 대상을 검토하였을 때, 총 405개로 조사되었다.

역사문화자원 중 경관자원은 공주시의 경우 금강과 제민천을 비롯한 하천과 정지산, 국고개, 우금치고개가 있으며, 부여의 경우 백제의 얼이 서린 백마강, 삼산, 자온대, 낙화암, 영일루, 구드래나루 등의 자연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통자원은 총 346개의 역사문화자원 중 276개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며, 공주의 경우 134개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고, 부여군의  경우 142개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다. 개별문화재는 관영건축, 유교건축, 유물, 유적, 사지, 효사상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근대역사문화자원은 총 26개의 자원이 분포하며, 공주와 부여에 각각 13개소씩 분포하고 있

다. 공공시설로는 충남금융조합 연합회회관, 봉황초등학교 교장사택, 공주 중동성단, 금강교등이 대표적인 근대역사문화자원으로 꼽을 수 있다. 부여에는 근대기의 역사문화자원은 찾아보기 힘들며, 조선시대 이후 부여행정의 중심이던 부여객사와 동헌을 꼽을 수 있다.

문화자원으로는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등이 있으며, 유원지로는 곰나루 관광단지, 부여의 구드래 관광지와 백제역사재현단지등이 있다. 시장으로는 공주의 산성시장, 부여의 5일장 등이 있다.

무형자원의 대표격인 축제로는 총 15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공주시는 동학사 봄꽃축제, 마곡사 신록 축제, 고마나루 축제, 웅진성 수문병고대식, 계룡산 분청사기 축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고 있고, 부여는 성홍산해맞이축제, 은산별신제, 갓개포구우여축제, 세도토마토축제, 석성양송이축제, 굿뜨레 수박축제, 서동 연꽃축제, 알밤축제, 백제문화제 등이 있다.

〈표 3-1〉 공주·부여의 역사문화자원 현황

| 구분 | 계 | 공주 | 부여 | 비고 |
|---|---|---|---|---|
| 계 | 405 | 170 | 235 | |
| 전통자원 | 346 | 142 | 204 | |
| 근대자원 | 26 | 13 | 13 | |
| 문화자원 | 18 | 9 | 9 | |
| 무형자원 | 15 | 6 | 9 | |

주) 경관자원, 경제자원은 제외, 전체 목록은 부록 참조

### 2) 역사문화자원의 시기별·문화재 지정별 현황

역사문화자원의 시기별로 검토하면 백제시대 문화자원이 113점, 조선시대 역사문화자원이 150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수도였다는 점과 공주의 경우 충청도 감영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이 두시기 문화재가 집중

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런 특징은 고도 범위내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주의 경우,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정지산유적, 대통사지 등 백제시대 문화재와 공주 감영터, 포정사 등 조선시대 문화재가 다수 확인된다. 또한, 부여는 산성을 비롯한 왕궁터, 정림사지 5층석탑과 같은 왕도와 관련이 있는 역사문화자원과 조선시대 부여행정의 중심지였던 부여객사와 동헌이 남아 있다.

〈표 3-2〉 공주·부여의 시기별 역사문화자원 현황

| 구분 | 계 | 공주 | 부여 | 비고 |
|---|---|---|---|---|
| 합계 | 387 | 161 | 226 | |
| 선사시대 | 26 | 12 | 14 | |
| 삼국시대 | 113 | 34 | 79 | |
| 고려시대 | 39 | 18 | 21 | |
| 조선시대 | 150 | 64 | 86 | |
| 근대 | 40 | 19 | 21 | |
| 미상 | 19 | 14 | 5 | |

주) 전체 목록은 부록 참조

역사문화자원 중 문화재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공주가 134개, 부여가 142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공주지역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43개, 도지정문화재가 56개, 문화재 자료 33개, 공주시 향토문화유적이 187개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특히 공주지역에는 국보 16점, 보물 15점, 사적 5개소 등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자리하고 있다. 충남도내에 분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가 국보 24점, 보물 77점, 사적 34개소인 것을 감안해 볼 때 대단히 많은 문화재가 공주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여에는 국가지정문화재 47개, 도지정문화재 54개, 문화재 자료 40개, 등록문화재 1개가 지정되어 있다. 국보가 4개, 보물이 16개, 사적 및 명승이 1개, 사적이 20개, 천연기념물이 1개, 중요민속자료가 4개소 등이 지정되어 있다.

〈표 3-3〉 공주·부여의 시기별 역사문화자원 현황

| 구분 | 계 | 공주 | 부여 | 비고 |
|---|---|---|---|---|
| 합계 | 276 | 134 | 142 | |
| 국가지정문화재 | 91 | 44 | 47 | |
| 국보 | 20 | 16 | 4 | |
| 보물 | 34 | 18 | 16 | |
| 사적및 명승 | 10 | 9 | 1 | |
| 사적 | 20 | | 20 | |
| 천연기념물 | 2 | 1 | 1 | |
| 중요민속자료 | 4 | | 4 | |
| 중요무형문화재 | 1 | | 1 | |
| 도지정문화재 | 109 | 55 | 54 | |
| 유형문화재 | 55 | 31 | 24 | |
| 기념물 | 43 | 18 | 25 | |
| 민속자료 | 2 | 2 | - | |
| 무형문화재 | 9 | 4 | 5 | |
| 문화재자료 | 73 | 33 | 40 | |
| 등록문화재 | 3 | 2 | 1 | |

자료) 공주시, 부여군, 통계연보, 2007

현재, 공주와 부여에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법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가 아직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백제시대와 조선시대의 역사문화자원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역사문화자원의 공간별 분포현황

역사문화자원의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공주시의 동부와 부여군의 부여읍에 분포하는 지정문화재는 총 127개로서 공주시 동부에는 61개 문화재가, 부여군 부여읍에는 66개의 지정문화재가 분포한다. 시가지에 45%이상의 문화재가 집중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지정문화재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국보와 보물의 경우는 대부분이 도심지내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도지

정문화재의 경우 36.7%가 도심지내에 분포하고 있어서 도심지내의 역사문화자원의 분포가 집중됨을 알 수 있다.

공주시의 경우 백제시대 고분군이 도심지의 외곽에 분포하고, 도시 중심부를 중심으로 근대시기 형성된 상업건축 및 사회기반시설이 잔존하여 통시적이고 광범위한 역사성을 담아내고 있다.

공산성 지역에 대다수의 역사자원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옛 충청감영 터에서도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자원이 도심 외곽지역은 도시개발의 굴레에서 비교적 자유로이 문화재 보존적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왔으나, 도심지역은 문화재 지정현황 등을 통해 개발논리에 밀려 보존적 차원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공주시의 역사문화자원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공간적 분포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강변 곰나루 지역은 크게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과 포정사 및 선화당 등의 역사자원을 중심으로 메밀문화회관, 공설운동장, 공주문예회관 및 웅진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이 배치되어 있고, 사적 관리소(공산성, 우금치 전적지, 송산리 고분군 관리)가 입구에 위치하여 접근을 유도하고 있다.

도심부는 국고개, 웅진로, 제민천 및 감영길 등의 가로에 인접하여 근대시기 건축물과 대통사지 등의 역사자원이 산재하여 있으나, 비교적 정비 및 보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강변의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과 도심부의 대통사지 및 중동성당 등 역사자원이 상호 권역간의 매개요소로 활용가능한 분포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공주와 부여를 연결하는 우금치길의 접점에 우금치 전적지가 인접도로의 확장공사에 따라 부대시설 등 새로운 정비계획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부여군의 경우 도시전체에 왕궁유적과 성곽유적, 사찰유적, 건축유적등이 산재하고 있다. 지역 유명인물로는 겸익, 아비지, 계백장군등이 있으며, 지역설화 및 전설로는 백제건국설화, 삼천궁녀와 낙화암, 계백장군, 고란사 약수등이 있다.

부여는 부여읍과 은산면, 홍산면 일원에 역사문화자원이 널리 산포하고 있으며, 백제왕도였

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유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성곽(나성 및 산성)을 비롯해 왕궁유적이 있다. 성곽유적으로는 나성과 부소산성을 포함한 주변의 청마산성 · 청산성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왕궁유적은 부소산 아래 현 문화재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그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발굴조사결과 왕궁지로 추정되는 유적이 조사되었고 인근에 백제시대의 8각형 우물, 연못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왕도내의 중요 시설물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찰유적이 가장 많으며(정림사지 · 동남리사지 · 군수리사지 · 왕흥사지 · 능산리사지 등) 그 외에 궁남지 · 능산리고분군 · 구드래나루 등이 있어 당시의 도시경관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현재 부여의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살리는 데는 현존하고 있는 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들 유적으로는 부소산성을 포함한 왕궁지유적 · 정림사지(정림사지5층석탑) · 궁남지 · 나성 · 군수리사지 · 동남리사지 · 구드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등이 활용가치가 높은 백제시대 유적이다. 이 외에도 역사성을 가진 것으로 낙화암을 비롯하여 설화인 삼천궁녀 이야기 등이 있으며, 문학작품으로 정읍사 · 산유화가 등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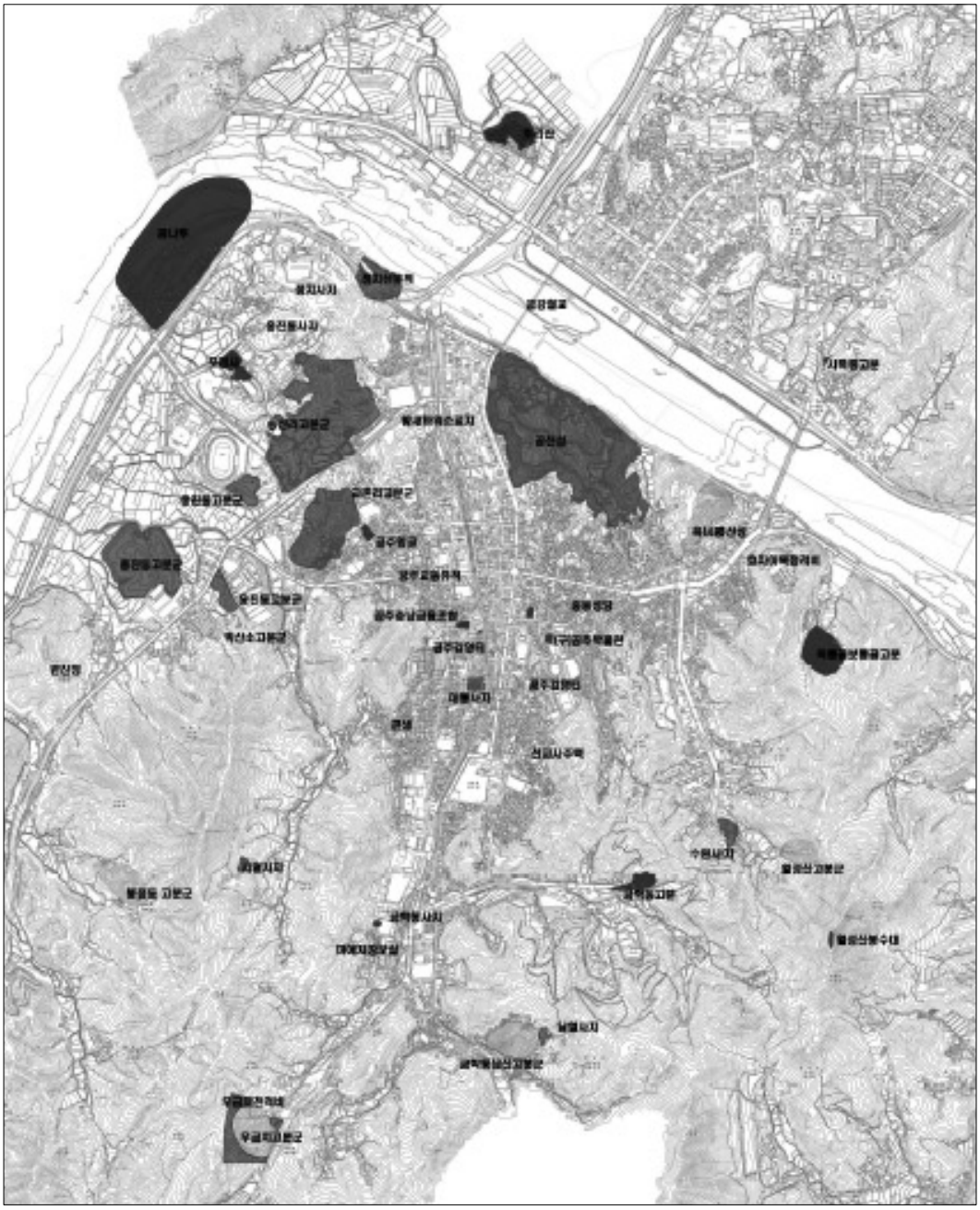
백제시대 이후의 유적으로는 고려시대 창건의 고란사, 정림사지 석불좌상을 비롯해 조선시대 부여향교, 부여동헌, 부소산성내의 각종 건축물(사비루 · 영일루 · 궁녀사 등) 등이 있어 부여의 역사성과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조선시대 건축유적으로는 부여현 관아로 사용되었던 건물과 객사가 있으며, 근대건축으로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다.

〈표 3-4〉 공주·부여의 도심지내 문화재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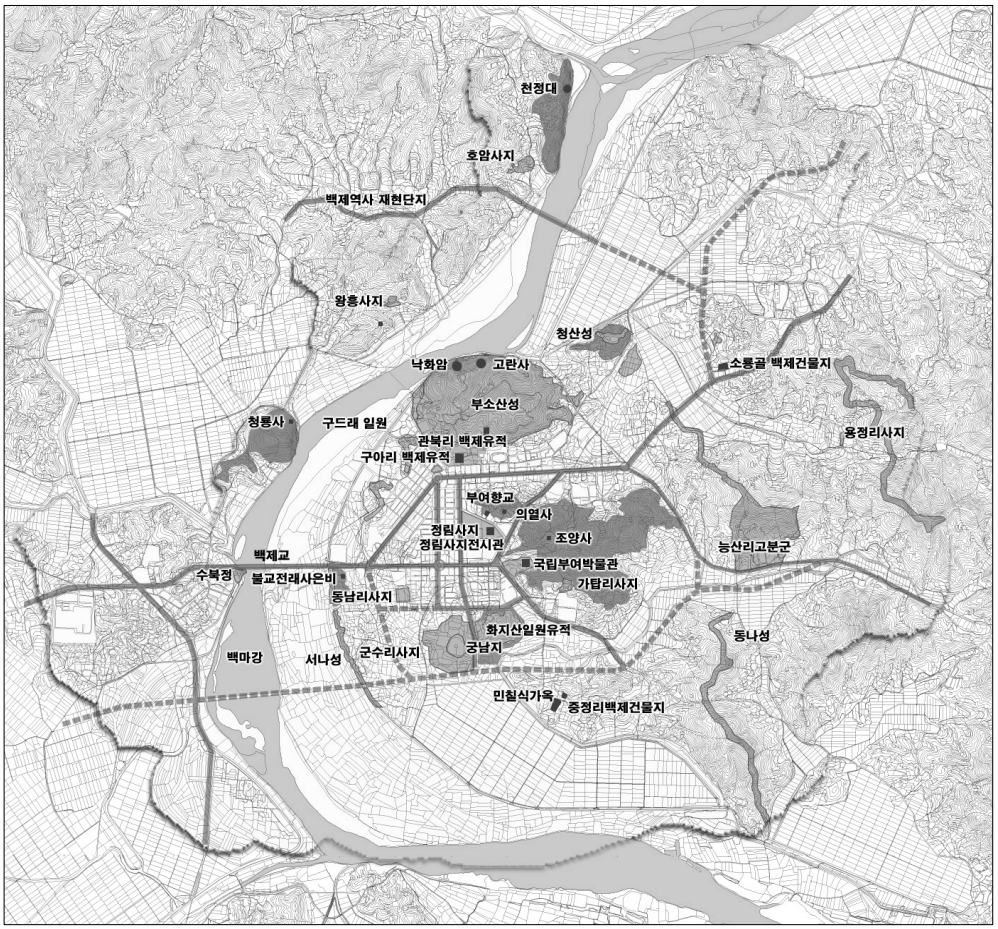
| 구분 | 문화재수 | | | 공주시 | | | 부여군 | | | 비고 |
|---|---|---|---|---|---|---|---|---|---|---|
| | 전체 | 도심지내 | 도심지내 비율 | 전체 | 동부 | 도심지내비율 | 전체 | 부여읍 | 도심지내 비율 | |
| 합계 | 276 | 127 | 46.0% | 134 | 61 | 45.5% | 142 | 66 | 46.5% | |
| 국가지정 문화재 | 91 | 55 | 60.34% | 44 | 25 | 56.8% | 47 | 30 | 63.8% | |
| 국보 | 20 | 18 | 90.0% | 16 | 14 | 87.5% | 4 | 4 | 100.0% | |
| 보물 | 34 | 14 | 41.2% | 18 | 6 | 33.3% | 16 | 8 | 50.0% | |
| 사적및 명승 | 10 | 6 | 60.0% | 9 | 5 | 55.6% | 1 | 1 | 100.0% | |
| 사적 | 20 | 13 | 65.0% | | | | 20 | 13 | 65.0% | |
| 천연기념물 | 2 | | | 1 | | | 1 | | | |
| 중요 민속자료 | 4 | 4 | 100.0% | | | | 4 | 4 | 100.0% | |
| 중요무형문화재 | 1 | | | | | | 1 | | | |
| 도지정문화재 | 109 | 40 | 36.7% | 55 | 23 | 41.8% | 54 | 17 | 31.5% | |
| 유형문화재 | 55 | 17 | 30.9% | 31 | 12 | 38.7% | 24 | 5 | 20.8% | |
| 기념물 | 43 | 19 | 44.2% | 18 | 9 | 50.0% | 25 | 10 | 40.0% | |
| 민속자료 | 2 | 1 | 50.0% | 2 | 1 | 50.0% | - | | | |
| 무형문화재 | 9 | 3 | 33.3% | 4 | 1 | 25.0% | 5 | 2 | 40.0% | |
| 문화재자료 | 73 | 40 | 54.8% | 33 | 11 | 33.3% | 40 | 19 | 47.5% | |
| 등록문화재 | 3 | 2 | 66.7% | 2 | 2 | 100.0% | 1 | | | |

자료) 공주시, 부여군, 통계연보, 2007

〈그림 3-1〉 공주시 동부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도



〈그림 3-2〉 부여군 부여읍의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도



## 2.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실태 분석

### 1) 역사문화자원의 특성

#### (1)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추출

공주와 부여지역에 분포하는 총 387개의 역사문화자원을 모두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도시개발적 측면에 있어서 권역개발 및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공주와 부여지역은 역사도시로서의 기반을 형성하는 단계로서 개별역사자원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선형적인 연계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앞서서 전술한 387개의 역사문화자원을 대상으로 역사자원을 대상으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명확한 정량적 기준보다는 지역적 가치, 원형적 가치, 역사적 가치에 의한 정성적 기준[57]을 근거로 하여 주요 대상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387개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이중 '매우 충분하다' 1회 또는 '비교적 충분하다' 2회 이상으로 평가되는 역사문화자원들을 추출하였다.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추출 결과 총 30개의 역사문화자원이 추출되었으며, 공주가 19개 부여가 11개의 역사문화자원의 추출되었다.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역사문화자원별 특성을 살펴보면, 백제시대의 고도로서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군수리사지, 정림사지 등의 역사자원이 추출되었다. 근대자원은 대부분이 공주지역에 분포하는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역사적 가치보다는 원형적으로 보전상태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문화자원으로는 국립 공주박물관, 부여박물관이 지역적 가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경관자원과의 연계도모가 원활한 곰나루관광단지, 문화관광단지, 구드래 관광지, 궁남지 등이 추출되었다.

57) 지역적 가치는 지역민에게 미친 영향과 체험의 정도를 추정
원형적 가치는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한 원형의 잔존 여부를 판단
역사적 가치는 문화재로서의 지정 유무 및 상징성 등을 판단

〈표 3-5〉 주요역사문화자원의 추출 근거

| 구분 | 종류 | 자원명 | 지역적 가치 | 원형적 가치 | 역사적 가치 | 위치 |
|---|---|---|---|---|---|---|
| 전통 자원 | 관영건축 | 공산성, 공북루 | ● | ● | ● | 공주 |
| | | 부소산성, 청산성 | ● | ◎ | ● | 부여 |
| | | 관북리 백제유적 | ● | ○ | ● | 부여 |
| | 유교건축 | 공주향교 | ◎ | ● | ◎ | 공주 |
| | | 부여향교 | ◎ | ● | ◎ | 부여 |
| | 유적 | 공주 송산리 고분군 | ● | ● | ● | 공주 |
| | | 황새바위 순교성지 | ◎ | ◎ | ○ | 공주 |
| | | 군수리사지 | ● | ○ | ● | 부여 |
| | | 화지산 일원 | ● | ○ | ● | 부여 |
| | | 능산리 사지 | ● | ○ | ● | 부여 |
| | | 정림사지 | ● | ◎ | ● | 부여 |
| | | 임강사지 | ◎ | ◎ | ◎ | 부여 |
| 근대 자원 | 공공시설 | 충남금융조합 연합회회관 | ◎ | ● | ◎ | 공주 |
| | 교육시설 | 봉황초등학교 교장사택 | ◎ | ● | ◎ | 공주 |
| | | 영명학교 구 본관 | ◎ | ● | ◎ | 공주 |
| | | 공주교육대학 승명관 | ◎ | ● | ◎ | 공주 |
| | 종교시설 | 공주 중동성당 | ◎ | ● | ● | 공주 |
| | | 선교사 주택 | ◎ | ◎ | △ | 공주 |
| | 상업·금융·의료시설 | 공제의원 | ◎ | ● | △ | 공주 |
| | | 금성금융조합 | ◎ | ● | ○ | 공주 |
| | 기타시설 | 금강교 | ● | ● | △ | 공주 |
| 문화 자원 | 박물관 | 국립공주박물관 | ● | ● | ○ | 공주 |
| | | 국립부여박물관 | ● | ● | ● | 부여 |
| | 문화시설 | 웅진도서관 | △ | ◎ | △ | 공주 |
| | | 공설운동장 | ● | ◎ | △ | 공주 |
| | 유원지 | 곰나루 관광단지 | ● | △ | △ | 공주 |
| | | 문화관광단지 | ● | △ | △ | 공주 |
| | | 구드래 일원 | ● | ◎ | ● | 부여 |
| | | 궁남지 | ● | ● | ● | 부여 |
| | 국악 | 연정국악원 | ● | ◎ | ○ | 공주 |

주) ● 충분하다 ◎ 비교적 충분하다 ○보통이다 △ 부족한편이다

## 2)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 실태 분석

공주와 부여의 역사문화자원의 관리 및 활용실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앞장에서 서술한 분석의 틀을 토대로 역사문화자원의 보전·활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역사문화자원의 보호적 차원에서의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상태, 기능변화 등을 평가하였으며, 활용적 측면에서는 현재의 정비현황, 활용계획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 (1)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실태

역사문화자원 중 경관자원과 전통역사자원은 백제시대에 속하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역사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통자원은 보전 및 정비 상태도 매우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전통자원은 백제시대와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서 현재 문화재보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자체 조례 등의 규제[58]에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근대 역사문화자원에 있어서는 역사성에 비하여 문화재로서의 지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보존상태 또한 부분훼손이거나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현재 주민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존상태에 비하여 대부분의 근대역사문화자원이 기존 시가지에 위치하거나 현재도 이용 중이어서 보존적 측면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훼손이 가중되는 상태이다.

문화자원은 대부분 현재에도 이용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조성코자 하는 자원으로서 문화재적 가치는 다소 빈약하다 하더라도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통자원과의 연계구축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58) 공주, 부여의 경우 역사문화자원 관련 법적 제약사항으로는 역사문화미관지구와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사항은 용도, 높이, 층수, 형태, 색채에 대하여 행위제한을 가하며, 공주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구역 2.23㎢, 문화재 영향 검토권 51.85㎢가 지정되어 있으며, 공주시 조례에 의한 미관지구가 0.15㎢, 고도지구가 7.27㎢가 지정되어 있다.
부여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문화재 구역이 6.52㎢, 문화재 영향 검토권에 65.94㎢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상 미관지구가 0.36㎢, 고도지구가 0.03㎢ 지정되어 있고, 부여군 조례에 의하여 보존지구가 2.56㎢, 경관지구가 0.28㎢, 수변경관지구가 0.07㎢가 지정되어 있다.

〈표 3-6〉 주요역사문화자원의 보존 실태

| 구분 | 종류 | 자원명 | 보호적 측면 | | | | 비고 |
|---|---|---|---|---|---|---|---|
| | | | 시기 | 문화재 가치 | 보존 상태 | 기능 변화 | |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공산성, 공북루 | 삼국시대 | 지정 | 원형보전 | 기능 없음 | 사적12호 |
| | | 부소산성, 청산성 | 삼국시대 | 비지정 | 부분훼손 | 기능 없음 | |
| | | 관북리 백제유적 | 삼국시대 | 지정 | 훼손 | 병원 부속건물 | 사적428호 |
| | 유교건축 | 공주향교 | 조선시대 | 지정 | 양호 | 기능 없음 | 유형문화재 75호 |
| | | 부여향교 | 조선시대 | 지정 | 훼손 | 기능 없음 | 기념물125호 |
| | 유적 | 공주 송산리 고분군 | 삼국시대 | 지정 | 양호 | 현용도 전시시설 | 사적13호 |
| | | 황새바위 순교성지 | 근대 | 지정 | 양호 | 현용도 순교전시장 | 기념물11호 |
| | | 군수리사지 | 삼국시대 | 지정 | 부분훼손 | 기능 없음 | 사적44호 |
| | | 화지산 일원 | 삼국시대 | 지정 | 부분훼손 | 기능 없음 | 사적425호 |
| | | 능산리 사지 | 삼국시대 | 지정 | 부분훼손 | 기능 없음 | 사적434호 |
| | | 정림사지 | 삼국시대 | 지정 | 양호 | 현용도 전시관 | 사적301호 |
| | | 임강사지 | 삼국시대 | 지정 | 양호 | 기능 없음 | 기념물34호 |
| 근대자원 | 공공시설 | 충남금융조합 연합회회관 | 근대 | 미지정 | 훼손 | 현용도 미술학원 | |
| | 교육시설 | 봉황초등학교 교장사택 | 근대 | 미지정 | 부분훼손 | 기능 없음 | |
| | | 영명학교 구 본관 | 근대 | 미지정 | 양호 | 기능 없음 | |
| | | 공주교육대학 승명관 | 근대 | 미지정 | 양호 | 기능 없음 | |
| | 종교시설 | 공주 중동성당 | 근대 | 지정 | 양호 | 기능 없음 | 기념물142호 |
| | | 선교사 주택 | 근대 | 지정 | 양호 | 현용도 병원부속건물 | 등록문화재 233호 |
| | 상업·금융·의료시설 | 공제의원 | 근대 | 미지정 | 양호 | 현용도 개인주택 | |
| | | 금성금융조합 | 근대 | 미지정 | 부분훼손 | 현용도 엽연초조합 | |
| | 기타시설 | 금강교 | 근대 | 지정 | 양호 | 기능 없음 | 등록문화재 232호 |
| 문화자원 | 박물관 | 국립공주박물관 | 근대 | 미지정 | 양호 | 현용도 박물관 | |
| | | 국립부여박물관 | 근대 | 미지정 | 양호 | 현용도 연구소 | |
| | 문화시설 | 웅진도서관 | 근대 | 미지정 | 양호 | 기능 없음 | |
| | | 공설운동장 | 근대 | 미지정 | 양호 | 기능 없음 | |
| | 유원지 | 곰나루 관광단지 | 근대 | 미지정 | 양호 | 기능 없음 | |
| | | 문화관광단지 | 근대 | 미지정 | 양호 | 기능 없음 | |
| | | 구드래 일원 | 근대 | 지정 | 양호 | 기능 없음 | 사적및명승 6호 |
| | | 궁남지 | 근대 | 지정 | 양호 | 현용도 생태공원 | 사적135호 |
| | 국악 | 연정국악원 | 근대 | 미지정 | 양호 | 기능 없음 | |

### (2)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실태

전통자원의 경우, 지정문화재의 경우 원형보전의 단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변지역과 함께 정비하는 경우는 백제시대 역사문화유적의 대표격인 공산성, 관북리 백제유적, 정림사지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즉, 역사문화자원의 정비는 문화재 자체의 보전 및 단순정비에 치중하고 있으며, 주변의 경관에 대한 보존대책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서 대부분 외형적으로 인지되는 건축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형의 자원에 대한 보존관리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근대자원의 경우, 특히 근대역사문화자원인 경우 보존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도시화의 과정중에서 중심시가지에 입지하게 되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안혹 있으며, 지속적인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활용적 가치가 쇠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공주시 중동성당의 경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구릉상에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보존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주변지역은 이미 각종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경관보존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근대산업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교는 일방통행으로 교통통행노선을 변경하고, 활용적 측면에서 루미아트의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인근의 역사문화자원과는 연계성이 미흡하다.

활용계획적 측면에 있어서 대부분의 예산투입이 백제시대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주와 부여를 대표하는 전통자원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단기적인 활용계획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예산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공산성 일원 연계명소화 사업[59], 정림사지 복합문화공간화 사업[60], 무령왕릉 예술공원화사업[61]과의 연계도모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성을 높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자원의 경우 새롭게 조성되는 곰나루관광단지, 문화관광단지, 구드래, 궁남지는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변자원과의 연계시 그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59) 공산성 연계 명소화 사업은 금강교, 배다리 복원, 옛나루터 및 나룻배 복원, 국고개 거리, 금강둔치를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금강교 및 공산성 야간조명 특화사업, 배다리 복원(210m), 나루터 및 나룻배 복원, 금강둔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60) 정림사지 복합문화공간화 사업은 부여중학교 이전, 백제초등학교 이전, 정립사지 사적공원화, 백제사비문화센터화, 국립박물관연결 회랑설치, 군민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다.

61) 무령왕릉 예술공원화 사업은 왕릉 상설무대 설치와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운영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3-7〉 주요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실태

| 구분 | 종류 | 자원명 | 활용적 측면 | | 비고 |
|---|---|---|---|---|---|
| | | | 정비현황 | 활용계획 | |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공산성, 공북루 | 주변지역 정비 | 유 | 공산성명소화사업 |
| | | 부소산성, 청산성 | 미정비 | 무 | |
| | | 관북리 백제유적 | 주변지역 정비 | 무 | |
| | 유교건축 | 공주향교 | 미정비 | 무 | |
| | | 부여향교 | 미정비 | 무 | |
| | 유적 | 공주 송산리 고분군 | 주변지역 정비 | 무 | |
| | | 황새바위 순교성지 | 단순정비 | 무 | |
| | | 군수리사지 | 미정비 | 유 | 궁남지권정비사업 |
| | | 화지산 일원 | 미정비 | 유 | 궁남지권정비사업 |
| | | 능산리 사지 | 미정비 | 유 | 나성권 정비사업 |
| | | 정림사지 | 주변정비 | 유 | 정림사지권정비사업 |
| | | 임강사지 | 미정비 | 무 | |
| 근대자원 | 공공시설 | 충남금융조합 연합회회관 | 미정비 | 무 | |
| | 교육시설 | 봉황초등학교 교장사택 | 미정비 | 무 | |
| | | 영명학교 구 본관 | 미정비 | 무 | |
| | | 공주교육대학 승명관 | 미정비 | 무 | |
| | 종교시설 | 공주 중동성당 | 단순정비 | 무 | |
| | | 선교사 주택 | 미정비 | 무 | |
| | 상업·금융·의료시설 | 공제의원 | 미정비 | 무 | |
| | | 금성금융조합 | 미정비 | 무 | |
| | 기타시설 | 금강교 | 단순정비 | 무 | |
| 문화자원 | 박물관 | 국립공주박물관 | 미정비 | 무 | |
| | | 국립부여박물관 | 미정비 | 무 | |
| | 문화시설 | 웅진도서관 | 미정비 | 무 | |
| | | 공설운동장 | 미정비 | 무 | |
| | 유원지 | 곰나루 관광단지 | 주변지역 정비 | 유 | 공산성명소화사업 |
| | | 문화관광단지 | 주변지역 정비 | 유 | 백제문화권사업 |
| | | 구드래 일원 | 주변지역 정비 | 유 | 부소산성권정비사업 |
| | | 궁남지 | 주변지역 정비 | 유 | 궁남지권정비사업 |
| | 국악 | 연정국악원 | 주변지역 정비 | 무 | |

〈표 3-8〉 주요역사문화자원의 실태 및 특성 종합

| 구분 | 종류 | 자원명 | 시기 | 보존상태 | 특기사항 | 문화재적 가치 | 활용적 가치 |
|---|---|---|---|---|---|---|---|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공산성, 공북루 | 삼국시대 | 원형보전 | - 금강에 인접한 포곡형 석축산성으로 공주 방어 성곽<br>- 성 내부에 다양한 건물지 발굴 | - 백제의 대표적 성곽<br>- 조성 당시 원형 유지 | - 지역이 경관·관광·역사의 중심공간 조성 |
| | | 부소산성, 청산성 | 삼국시대 | 부분훼손 | - 복합식 산성으로 퇴메식 산성과 포곡식 산성이 결합됨<br>- 성내 충령사 등 역사성이 결여된 시설물 배치로 고유기능 상실 | - 백제의 대표적 성곽 | - 백제시대 대표적 사적공원으로 상징성 부여 |
| | | 관북리 백제유적 | 삼국시대 | 훼손 | - 건물터·하수도·도로유적 등의 발굴 | - 백제시대 왕궁터로 추정 | - 사비도성 복원을 통한 백제의 역사성 회복 |
| | 유교건축 | 공주향교 | 조선시대 | 양호 | - 유교적 배향과 교육, 지방민 교화를 위해 창건<br>- 웅진동 숭산에서 현 위치로 이전 | - 지역 대표적 유교문화유적<br>- 다양한 유교적 자료 소장 | - 전통적 교육과 제례, 놀이 등의 중심공간 조성 |
| | | 부여향교 | 조선시대 | 훼손 | - 구교리에서 현 위치로 이전<br>- 대성전 등 내부 건축물 및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보수 필요 | - 지역 대표적 유교 문화유적 | - 유교 문화 전파 및 주민 휴양공간 활용 |
| | 유적 | 공주 송산리 고분군 | 삼국시대 | 양호 | - 백제시대 대표적 고분군<br>- 무령왕릉 등 다수의 고분 분포 | - 백제 무덤양식에 대한 역사적 증거자료 | - 공주 역사관광의 중심지로서의 기능 확립 |
| | | 황새바위 순교성지 | 근대 | 양호 | - 신유사옥 이후 공주 감영 순교자 공개처형장소<br>- 천주교와 관련된 약 일천명의 순교 | - 지역 대표적 종교자원으로서의 가치 부여 | - 천주교 중동성당과 연계한 종교 순례지 개발 |

〈표 계속〉

| 구분 | 종류 | 자원명 | 시기 | 보존상태 | 특기사항 | 문화재적 가치 | 활용적 가치 |
|---|---|---|---|---|---|---|---|
| 전통자원 | 유적 | 군수리사지 | 삼국시대 | 부분훼손 | - 백제시대 절터로 최초 발굴조사된 유적<br>- 1탑 1금당식 가람확인 | - 백제불교미술사와 건축사연구의 귀중한 자료 | - 궁남지, 화지산 일원과 연계한 역사·관광지 조성 |
| | | 화지산 일원 | 삼국시대 | 부분훼손 | - 양호한 수림과 백제 무왕조의 서동요 전설 유래 | - 백제무왕 설화·이궁지·어정·망해정 등 역사문화자원 보유 추정 | - 무왕조 서동요전설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근린공원 조성 |
| | | 능산리 사지 | 삼국시대 | 부분훼손 | - 일탑 일금당식 배치<br>- 백제금동대향로 출토<br>- 왕실에서 건립한 절터 | - 삼국시대 고고미술 연구의 귀중한 자료 | - 인접 능산리 고분군 및 청산성과 연계 개발 추진 |
| | | 정림사지 | 삼국시대 | 양호 | - 도시 내에 위치한 대표적 백제 절터<br>- 현재 강당, 연못 등 일부 복원 | - 백제불교의 핵심유적 | - 문화재 복원정비를 통한 백제불교의 우수성 홍보 |
| | | 임강사지 | 삼국시대 | 양호 | - 백제 절터로 건물지 기단과 주초석 보존 양호 | - 백제사원 연구의 훌륭한 자료 | - 백제 사원 건축에 대한 고증과 복원 자료 활용 |
| 근대자원 | 공공시설 | 충남금융조합 연합회 회관 | 근대 | 훼손 | - 규모는 작으나 좌우대칭형의 전형적 고전주의 건물<br>- 공주 읍사무소 및 시청사로 활용 | - 내부와 달리 외부 형태에 있어 비교적 원형이 잘 유지되어 당시의 건축적 양식을 잘 보여줌 | - 문화재 지정을 통한 지역 내 역사 유물로의 활용 |
| | 교육시설 | 봉황초등학교 교장사택 | 근대 | 부분훼손 | - 봉황초교 개교와 함께 지어진 일본식 목조주택<br>- 원활한 집무활동과 개인 생활을 위한 건축적 배려 | - 해방전후 한국 근대 주거의 건축양식사적 측면 연구 자료 | - 노후화로 인한 심각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 필요 |
| | | 영명학교 구 본관 | 근대 | 양호 | - 공주 최초의 기독교 정식학교 | - 지역 종교 교육시설의 시초로서의 역사성 | - 문화재 지정 및 시설 보완을 통한 지속적 활용성 부여 |
| | | 공주교육대학 승명관 | 근대 | 양호 | - 교육도시 공주를 대표하는 초기 교육시설<br>- 현재도 교육장으로 이용됨 | - 지역 교육의 산실로서의 이미지 | - 지속적인 교육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

〈표 계속〉

| 구분 | 종류 | 자원명 | 시기 | 보존상태 | 특기사항 | 문화재적 가치 | 활용적 가치 |
|---|---|---|---|---|---|---|---|
| 근대자원 | 종교시설 | 공주 중동성당 | 근대 | 양호 | - 고딕식 종탑을 갖춘 천주교 사적<br>- 성당 전체의 구원의 배 형태로 구성됨 | - 지역 대표적 천주교 자원 | - 인근 순교지 및 역사자원과 연계한 순례·관광자원으로 연계활용 |
| | | 선교사 주택 | 근대 | 양호 | - 지하 1층, 지상 3층의 조적조 건물<br>- 기숙사와 병원으로 활용<br>- 현재 주택 겸 선교센터로 활용 | - 조성 당시의 원형이 남아 있음 | - 선교 및 종교관련 지원기능 강화 |
| | 상업·금융·의료시설 | 공제의원 | 근대 | 양호 | - 일제시대 건축양식 보유<br>- 건물 외벽이 벽돌로 구성됨 | - 일제시대의 지역 건축양식 보유 | - 문화재 지정을 통한 근대건축사료로 활용 |
| | | 금성금융조합 | 근대 | 부분훼손 | - 지역 금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시설<br>- 조적조 건축물 | - 조성 당시의 원형이 남아 있음 | - 문화재 지정 및 시설보완 필요 |
| | 기타시설 | 금강교 | 근대 | 양호 | - 일제시대 지역내 최대 철근교량<br>- 공주와 장기방면 철도를 위한 다리로 건설 | - 지역의 흥망을 함께한 지역 최대 근대 건축물 | - 금강·공산성 등과 연계한 대표적 경관·보행자원으로서의 가치 활용 |

## 3.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 특성

### 1) 전제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공주・부여의 역사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활용의 가능성이 있는 387개소의 조사대상을 1차적으로 선정・조사한 후,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30개소의 주요대상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실태 분석과 그 특성을 파악하여 보았다.

일부 연대를 알 수 없는 역사문화자원 등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범위에 부합토록 공주 및 부여의 기존 시가지에 분포하는 역사문화자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기인하였으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틀을 준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출된 대표 역사문화자원 30개는 그 역사적 의미에 따라 경중을 가릴 수는 있겠으나, 백제 역사문화도시 기본구상(2008)의 설문조사에 의한 전략사업시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부소산성, 궁남지등의 사업을 포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주요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과 다름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 2) 전반적 특성

#### (1) 시기적 특성

공주・부여의 역사문화자원은 대부분이 백제시대와 조선시대에 집중・조성되었다는 특성을 보인다.

백제시대의 고도로서의 역사문화자원의 분포는 삼국시대에 113개로서 29.2%, 조선시대 150개로서 38.8%를 차지하며, 전체 387개중에 263개소로서 전체 역사문화자원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백제시대의 대표 역사문화유적은 공산성, 공북루, 부소산성, 관북리 백제유적 등 전통자원 중 관영건축물에 해당하는 역사문화유적이 대표적이며, 조선시대 유적으로는 공주향교와 부

여향교가 대표적이다.

백제시대의 대표 역사문화유적은 대부분 단순 정비에 치우쳐 있으며, 활용적 측면에 있어서 공산성을 비롯한 대표유적만이 주변정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조선시대 역사문화자원은 대표 역사문화자원에 2개소만이 추출되어 삼국시대에 비하여 정성적으로 빈약함을 알 수 있다.

근대 역사문화자원이 대표 역사문화유적으로 8개가 추출되어 역사문화유적의 활용적 가치에 의한 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으로는 공주 중동성당, 선교사 주택, 충남금융조합 연합회회관, 영명학교 구 본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근대 역사문화자원은 활용 잠재력이 큰 반면 도시의 기성시가지에 집중분포하고 있어 그 훼손정도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에 들어서서 문화와 관광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 투자가 집중되면서 곰나루 관광단지, 문화관광단지, 구드래, 궁남지 일원이 새로운 역사문화자원으로 조성되거나 계획되고 있으나 재원상의 한계로 인하여 조성이 미흡하다. 하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대부분의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계획에는 문화재와 관광지를 연계하는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사업 추진시 시너지효과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입지적 특성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387개의 예비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주와 부여의 다면적에 걸쳐서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문화재의 경우 총 276개중 도심지내에 127개가 분포하여 도심지내에 분포하는 비율이 46.0%로서 도심지에 집중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의 경우 45.5% 부여의 경우 46.5%로 나타났다.

공간상으로 공주시의 경우, 고분군을 비롯한 백제시대의 역사문화자원은 도심지의 외곽에 분포하고 있으나 도시 중심부를 중심으로는 근대기에 형성된 상업 건축이 분포하고 있다. 도심 외곽지역은 도시개발의 굴레에서 비교적 자유로와 문화재 보존적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어 왔으나 도심지역은 문화재 지정현황 등을 통해 개발논리에 밀려 보존적 차원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음을 짐작케 한다.

부여군의 경우는 도시전체에 왕국유적과 성곽유적, 사찰유적, 건축유적이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부여읍을 둘러싼 대부분의 유적은 성곽을 비롯한 왕국유적이 집중분포한다.

### (3) 보존・활용적 특성

대표 역사문화자원으로 선정된 전통자원은 보전 및 정비 상태도 매우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대표역사문화자원은 문화재보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지자체의 조례 등의 규제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역사문화자원은 지정문화재의 경우 원형보전의 단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변지역과 함께 정비하는 경우는 공산성, 관북리 백제유적, 정림사지에서만 찾아 볼수 있다. 대표역사문화자원이라 하더라도 주변지역과의 경관적 이질감이 있어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고 있다.

근대역사문화자원의 경우 보존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정비가 미흡하여 도시화의 과정중에서 중심시가지에 입지하게 되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훼손이 진행되어 그 활용적 가치가 쇠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예산투입이 백제시대의 대표문화재를 중심으로 투입 및 계획되어 있어서 근대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존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계획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은 단순 문화재의 보존에 그치지 않고 역사문화자원간의 연계 및 특성화, 복합화를 구상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 거양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단순 점적인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에서 벗어나 역사문화자원간의 연계를 위한 선적인 네트워크를 위한 활용방안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 제4장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 1.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기본방향 및 전략

### 1) 기본방향

도시의 문화적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도시만이 갖는 정체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도시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를 파악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역사, 문화, 경관, 산업등과 같이 전국적인 수준보다는 지역에 토착화되어 있고 지역적인 수준에만 영향이 파급되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62]고 말한다.

역사분야에서는 도시의 역사적 사전이나, 역사적 인물 등이 중요한 전래자원이 될 수 있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세부 분야의 자원이 있을 수 있다. 경관분야에서는 산림, 하천 등의 자연경관이나 도시내의 건축물, 구조물, 도시공원 등과 같은 경관이 주요 대상이 되며, 산업분야에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 특화되는 산업이 있을 경우 도시정체성 확립의 기반이 될 수 있다.[63]

이러한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속성은 문화로서의 속성이며,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역사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

62) 박은실(2005), 도시재생과 문화정책의 전개방향, 문화정책 논총, PP16-18.
63) 오덕성(2007), 전게서, P55.

기 위해서는 역사도시가 갖는 역사적 실체의 재현만이 아니라, 현 주민의 삶의 모습이 역사도시의 표정에 편안히 녹아들도록 고대와 현대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64]

문화는 인간이 수백만년전에 창조한 이래 그 자체가 우리의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진화해왔다. 문화는 조상들의 모든 지혜가 동원된 결과물로 우리가 이 자연과 사회속에 살수있는 힘을 줄뿐 아니라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65]고 말하며, 그 방향을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역사도시의 역사적 실체를 보존하고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보존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역사도시의 역사적 진정성을 회복하고 이를 발전시켜나가는 부분으로 지형조건, 역사문화유적, 공간적 골격 등을 분석하여 반드시 보전 또는 복원해야할 곳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또한 단순한 보존만이 아니라 효율적인 보존방법을 연계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현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활력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도시활력화는 도시재생개념에 입각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터와 일터를 역사문화유적과 조화롭게 보완하고 조성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환경과 주민의 주거공간이 퇴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어루어진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시활력화는 유럽의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 유럽의 도시들이 각도시의 역사적 전통을 현대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은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마다 역사문화적 행위와 전통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 거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담겨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66]

셋째, 역사문화자원과 주민생활공간의 조화를 도모하여 고부가가치를 거둘 수 있는 관광자원화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잘 보전되고 복원된 역사적 실체와 현 주민의 삶터를 조화시켜 역사적 실체와 현 주민이 삶터를 조화시켜 관광자원화하되, 관광자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64) 문화재청(2007), 전게서,P91.
65) 이영범(2005), 도시담론으로서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전략을 통한 도시재생, 문화정책논총, 제 17집,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66) 추용욱(2006), 전게서,P91.

과 꼭 보여주어야 하는 것 등을 역사적 사건 및 설화와 연계하여 고부가가치의 관광상품으로 창출하여야 한다.

### 2) 역사문화자원 활용 전략

역사도시의 관련 문화재가 대부분 기존의 구도심과 중심시가지에 입지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자연환경과 역사적 골격의 연계보존이다. 대부분의 역사도시는 도읍지를 만들게 된 지형적 조건으로서, 역사도시 구성의 핵심요소이며, 역사도시의 핵심골격을 이루는 궁궐, 사찰, 주작대로 등의 경관적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역사도시의 산과 하천 그리고 역사도시의 핵심적인 역사골격을 연계하여 보존함으로써 통합적 역사문화경관축을 조성하여야 한다.

공주의 경우 금강, 공산성, 정지산, 연미산 등을 송산리 고분군, 고마나루 등과 연계하여 경관적 조화를 도모하여야 하고, 부여의 경우 백마강과 부소산, 금성산, 부산을 관북리 궁궐터, 정림사지, 궁남지로 이어지는 핵심골력과 연계하여 역사도시로서의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훼손된 역사도시의 공간구조를 복원하여야 한다. 많은 건축 및 도시계획가들이 도시공간을 다룰 때 도시조직의 중요성을 거론한다. 도시조직[67]이란 도시를 구성하는 가로망, 다양한 크기의 건물, 녹지, 공공시설물들이 섬유조직처럼 연결된 가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역사도시에서는 이러한 도시조직 중에서 오랜시간 축적되어온 시간의 켜를 분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공주나 부여는 도읍지로서만이 아니라 오랜시간 동안 일반도시로 기능해왔다. 그로인해 역사유적이나 핵심골격이 훼손되거나 단절된 곳이 많다. 이를 시간적으로 단절된 도시공간구조를 유적간의 연계축을 확보하고 역사문화적 골격을 회복시켜야 한다.

67) 송인호(2004)는 도시조직은 길과 필지와 오픈스페이스와 건물들로 구성되고,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대상이며, 외형적으로는 하나의 모습이지만, 몇 개의 켜가 겹쳐져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통합적인 역사문화 경관축을 조성하여야 한다. 역사도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진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역사문화유산의 절대적 보존만이 아니라 새로운 개발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역사도시의 핵심구성요소와 경관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존하되 다양한 경관적 변화감을 조성하여 지역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역사도시활성화를 위한 경관관리적 또는 디자인적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도시에 대한 미적 디자인이 중시되고 있으며, 뉴욕, 파리, 싱가폴, 도쿄, 요코하마, 고베등 세계 대도시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공공디자인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검토대상을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간판 등 부분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시전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경관법[68]에 의한 역사문화자원의 디자인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규제로 보기 보다는 역사도시 전체의 역사적 경관을 전통 미적 차원에서 디자인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 문화재 주변의 건물, 도로, 자연환경을 그 대상으로 하되 문화재를 제외한 주변건축물, 도로, 자연환경은 경관관리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전통적 외관을 갖춘 대중교통수단 활용과 도보통행 중심의 역사문화 통행축의 조성이 요구된다.

또한, 역사도시이 도로는 통과공간이 아닌 가로문화공간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역사문화유적을 기본축으로 하여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질서있게 배치하여야 하고, 통과가 아닌 머무름의 공간, 관찰과 관조의 공간, 참여와 오락의 공간, 여가와 즐거움의 공간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69]

---

68) 우리나라 경관법은 2007년 5월 제정되었고, 2007년 11월에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경관법의 목적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여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69) 안건혁·서준원(2001), 상업가로에서 나타나는 만남의 장소의 특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7권 제4호, 대한국도토시계획학회.

## 2. 공주・부여의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 1) 제도화를 통한 역사문화자원의 보호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을 검토하면서 387개의 역사문화자원 목록을 작성하였고, 이중 주요 역사문화자원을 30개소를 추출하였다. 역사문화자원 중 전통자원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되고 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30개소는 반드시 보호되어야하는 역사문화자원들이다. 이를 위해 도시화에 의해 해체될 위험이 있는 것부터 선별과정을 통해 시급히 지정문화재로 지정받아야 더 이상의 훼손과 멸실을 막아야 한다.

특히, 근대역사문화자원의 경우 현재의 보전상태는 양호하더 하더라도 대부분의 근대역사자원이 공주와 부여의 도심부에 위치함에 따라 도시화에 따른 훼손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등록문화재로의 등록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 2)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복원사업의 추진

#### (1)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면밀한 기초조사의 선행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면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훼손상태가 심하거나 원형에 대한 자료가 없어 복원이 어려운 역사문화자원도 있겠지만,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문화자원은 원형 보호 또는 복원 후 재활용을 기본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

활용을 위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가장 문제시 되는 사항이 ① 장기간 사유재산권의 규제로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며 ②보호구역내 건물의 신증축 및 개축금지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지고 있고, ③각종공사와 관련하여 유물출토시 발굴비의 시행자 부담 등으로 인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표조사와 문화재조사를 통해 개발가능지와 개발불능지 및 역사유적 보전지를 정확하게 추출하는 등의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2)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방향 및 가이드라인 설정(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도시가 개성을 발휘하려면 도시의 얼굴을 만들어가야한다. 도시의 얼굴은 도시의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적 문화요소를 통해 문화가 살아숨쉬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펄로프(perloff, 1979)는 문화가 첫째, 도시민들에게 사회학습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둘째, 도시사회의 커뮤니티 형성과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며, 셋째, 도시 경제에 직접적, 그리고 잠재적으로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단순 복원·활용이 아닌 도시적 차원에서 문화요소와의 융합, 커뮤니티와의 접목, 도시경제활성화와의 결속 등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활용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도시계획에서 고려해야할 문화요소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70)]

- 도시이미지 → 도시를 특징하는 문화키워드 만들기
- 도시경관 →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경관관리로
- 도시기능 → 국제업무 지원기능, 복합화, 퓨전화로
- 도시시설 → 도시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 도시공간 → 다핵의 편의성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 도시서비스 → 누구나 도시문화서비스를 즐기게
- 도시환경 → 생태문화도시로
- 도시교통 →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로
- 도시예술 → 예술문화가 살아 숨쉬게
- 도시활동 → 활력과 끼가 흐르는 문화거리로
- 도시생활 → 생활문화에 항시 접목되도록
- 도시이벤트 → 언제 어디서나 문화이벤트가 일어나도록

계획요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토록 하여야 한다.

---

70) 원제무(2008), 마음으로 읽는 도시, 삶의 공간을 가꾸는 도시계획, 도서출판 조경, p46.

· 공간 → 닫혀있던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 랜드마크 →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상징적 랜드마크 구축하기
· 네트워크 → 거미줄 처럼 연결된 문화벨트 만들기
· 핵(Core) → 다양한 도시의 코어가 정체성을 지니며 다른 코어와 연계
· 지구 → 도시 곳곳을 다양한 문화활동을 담을 수 있는 지구로
· 거리 → 거리의 삶의 모습이 거리문화가 되는 거리 만들기
· 도로 →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으로
· 동네 → 동네주민들이 친근감과 동질성을 느끼는 동네만들기
· 시설 → 주민들이 도시 시설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 3) 지구적차원의 종합적·통합적 활용계획 추진

역사문화자원 중 전통역사문화자원은 비교적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문화재로서 지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근대역사문화자원은 비교적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지고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일 보호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주변공간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완충지대 개념을 도입하고 공원화, 문화단지화 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지구적 차원의 접근을 위해서는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재생 및 활용이라는 모토 아래 역사문화자원간 연계,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재생 및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그 대부분은 축제, 기반조성, 공연 및 전시, 경관조성, 콘텐츠사업 등과 같은 문화 육성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된 문화예술 기반시설이나 도시경관사업, 도심환경 정비 및 어메니티 창조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공주시의 경우, 공산성과 무녕왕릉, 송산리고분군, 국립공주박물관, 곰나루관광지, 공주문화관광지를 연계하고 하나의 전통역사문화자원의 축으로서 기능토록 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으며, 부여군은 경우 부소산성과 궁남지를 축으로 하여 정림사지 화지산을 연계하는 전통역사문화자원의 축을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근대역사문화자원에 있어서 공주시는 국고개, 구)국립 공주박물관, 공주문화원, 충청감영을

중심으로 근대역사문화자원의 코어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커뮤니티 활동 및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 요약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역사도시로 대표되는 공주와 부여의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역사적 흔적을 갖고 있는 지역, 장소, 그리고 건축물이 보존일변도의 박물관적 보존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같이 살아 숨쉬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전제하에 출발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함과 동시에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도시 나아가서는 창조적 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그 활용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수행되었다. 첫 번째는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조사·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을 종합적으로 단계별로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는 예비조사단계로서 관련 이론과 관련성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종합하여 목록화 하였다. 세 번째는 기초조사목록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조사자료와의 비교·검토를 거쳐서 주요대상을 추출하고, 마지막으로 추출된 역사문화자원을 대상으로 보호적 측면과 활용적 측면에서 역사문화자원을 조사분석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문화재 위주의 전통역사자원에서 벗어나 경관자원, 전통역사자원, 근대역사자

원, 문화자원, 경제자원, 무형자원을 포괄하는 역사문화자원은 총 405개로 조사되었다. 기초문화목록화된 역사문화자원은 시기적으로 볼때 삼국시대 113점, 조선시대 150점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공주와 부여가 백제의 수도였다는 점과 공주의 경우 충청도 감영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집중분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간적으로는 백제의 고도로서 전체 역사문화자원 중 공주와 부여의 도심지에 46.0%의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며, 국가지정문화재는 60.3%, 도지정문화재는 36.7%의 문화재가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의 경우 도심외곽부에는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을 비롯한 전통역사문화자원과 공주문예회관 및 웅진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도심부에는 근대 역사문화자원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부여군의 경우는 도시전체에 왕궁유적과 성곽유적, 사찰유적, 건축유적이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다.

둘째, 387개의 역사문화자원을 검토하여 지역적 가치, 원형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별하여 30개의 주요역사문화자원을 추출하였다. 전통자원은 역사적 가치와 지역적 가치 측면에서 충분하다는 평가를 보였으며, 근대자원은 원형적 가치측면에서 풍부하다는 평가를 문화자원은 지역적 가치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평가를 보였다.

셋째,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 특성에서는 대표 역사문화자원으로 선정된 전통자원은 보전 및 정비 상태도 매우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대표역사문화자원은 문화재보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지자체의 조례 등의 규제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역사문화자원은 지정문화재의 경우 원형보전의 단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변지역과 함께 정비하는 경우는 공산성, 관북리 백제유적, 정림사지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역사문화자원이라 하더라도 주변지역과의 경관적 이질감이 있어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고 있다.

근대역사문화자원의 경우 보존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정비가 미흡하여 도시화의 과정중에서 중심시가지에 입지하게 되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훼손이 진행되어 그 활용적 가치가 쇠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예산투입이 백제시대의 대표문화재를 중심으로 투입 및 계획되어 있어서 근대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존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주·부여의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연구에서 역사문화자원을 검토하여 30개의 주요역사문화자원을 추출하였는 바, 30개소중 전통역사문화자원은 지정문화재로서 보호를 받고 있으나, 근대역사문화자원의 경우 현재의 호본상태가 양호하더라도 대부분 공주와 부여의 도심부에 위치함에 따라 도시화에 따른 훼손은 더욱 더 가속활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등록문화재로의 등록이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구체적인 활용대책의 마련과 복원이 가능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복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적으로 문제시 되는 제약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면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주와 부여에 있어서의 방향과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의 점적 보전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역사문화자원간 연계 및 자원간 밀집도· 활용도에 따른 지구적 차원의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지구적 차원의 접근을 위해서는 역사문화자원간 연계, 연사문화자원의 복합사업 추진이 병행추진되어야 한다.

공주시의 경우, 공주시의 경우, 공산성과 무녕왕릉, 송산리고분군, 국립공주박물관, 곰나루관광지, 공주문화관광지를 연계하고 하나의 전통역사문화자원의 축으로서 기능토록 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으며, 부여군은 경우 부소산성과 궁남지를 축으로 하여 정림사지 화지산을 연계하는 전통역사문화자원의 축을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근대역사문화자원에 있어서 공주시는 국고개, 구)국립 공주박물관, 공주문화원, 충청감영을 중심으로 근대역사문화자원의 코어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커뮤니티 활동 및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충청남도 역사도시로서 문화재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공주·부여를 대상으로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문화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는 문화재 중심의 연구를 수행한 반면, 본 연구

는 문화재를 포함한 역사문화자원이라는 큰 개념적 정의와 요소를 밝히고, 각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활용가능한 역사문화자원을 추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역사문화자원의 분야의 확장 및 구체화이다.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재는 물론이며, 근대기에 형성된 지역의 향수와 장소성을 느낄 수 있는 대상까지 영역을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백제시대의 고도로서 충남의 공주와 부여는 문화재 중심의 역사도시로서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으나, 이러한 문화재 중심의 활용에 있어서는 역사도시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는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그 활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보전일변도의 소극적인 활용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아닌 근대기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므로, 지역연구에 있어서의 새로운 확장을 위한 시각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셋째는 역사도시인 충남의 공주와 부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공주와 부여는 역사도시뿐만 아니라 문화도시, 창조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문화재의 단순 보전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도시상을 구현하는 데에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향후 공주·부여가 지향하는 역사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생, 성장관리형 도시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에 따른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지만, 도시화에 따라 훼손되어가고 있는 근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전 및 활용방안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Charles Landry(2005), The Creative city. Earthscan Pablications Ltd.

· Landry(2007).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해남

· Wayne. O. Attoe(1979), Historic preservation in Anthony J. Catanese · James C. Snydered, Introduction to urban planning, McGraw-Hill.

· 강경구(2001), "도시계획 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동진외 3(2005), 부산시 건설산업유산의 실태분석,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0권 제6호

· 강태호 · 신재범(2001), 사적지구의 경관보존 및 관리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제 10권

· 강형기(2005). 관광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국토연구원(2007). 고도 보존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관리 방안

· 김경택 · 김성남(2007). 부여지역 백제문화유적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공주 · 부여 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 등재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 자료집

· 김기호(2004), 도시 역사환경 보존-면적 보존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13권 4호

· 김동훈(2003). 수원 화성경내의 보존과 회복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 김란기(2005), 경관법 체제하에서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전략,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김봉한외 7인(2006), 백제고도 공주 · 부여의 역사성 보존과 도시개발의 조화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9권 제3호
· 김선태 · 손승광 · 김인호(2007), 역사도시에서 전통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리모델링 및 관리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 김성진(2005). 관광레저도시 개발모형 및 정책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성진, 변재연, 김윤영(2006). 지속가능한 정주형 관광개발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영대(1992). 역사도시 경주의 문화경관의 회복과 도시설계의 접근방향. 한국조경학회
· 김영환(2008), 성장관리형 도심재생 가이드라인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제8호
· 김정원(2004), 서울도심 문화재 주변지역의 면적관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춘식 · 남치오(2002).「세계 축제경영」. 김영사
· 김향자(2000). 개발패러다임의 전환과 21세기 관광개발방향, 한국관광정책연구원
· 김혜란(1995), 도시재개발에 있어 역사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박사과정 세미나 자료
· 김홍기(2004), 역사적 도심재생의 계획특성에 관한 분석,
· 김홍운(1998). 문화관광, 문화관광도시의 정체성을 높여야. 문화도시문화복지
· 김효정(2004). 문화도시육성방안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김흥식(1992), 도심의 역사적 경관보전, 대한건축학회지 제36권 제1호
· 남궁숭태(1997),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역사문화환경.
· 라도삼(2006). 문화도시의 요건과 의미와 필요조건. 도시문제
· 류제홍(2005). '문화적 도시'를 구상하며. 문화연대 정책토론회
· 모장진(2000), 역사환경을 고려한 도시문화재 주변 도시설계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모장진(2000), 역사환경을 고려한 도시문화재주변 도시설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2002). 문화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 문화재청(2007), 고도보존 기초조사 연구, 문화재청
· 문화재청(2007), 고도보존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 문화재청
· 문화재청(2007). 문화유산 관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재 활용정책연구.
· 박병식 · 이종렬(1999), 역사 · 문화 · 관광도시로서이 경주시 도시계획발전방안 : 전략적 도시계획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경주문화연구, 경주대 경주문화연구소.

· 박숙진(2003). 독일의 테마관광개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전문경영인학회
· 박찬숙 외(2007). 「일본경제 공공디자인으로 다시 살아나다」. 가인디자인그룹
· 백선영(2007), 역사문화지역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 변항기(2006), 구도심 재생을 고려한 복합문화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 사사키 마사유키(2006). 창조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공간적 문화정책의 방향. 2006 인천광역시 문화정책 토론회
· 송인호(2004) 서울의 옛 도시조직과 새로운 도시건축, 2004 도시세미나 도시속의 건축 도시속의 주거, 건원
· 송준철(2001),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광주도심 정비계획,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 신유승(2002),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통한 도시공간 재구성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안유정 · 이만형(2006), 역사문화보존지구를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인 환경 조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제11권.
· 오덕성(2007),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제7권 제6호.
· 오덕성 · 문홍길(2000), 도시설계, 기문당
· 오세경(2001), 공주시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유형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6권 5호
· 온영태(1993), 역사도시의 현재와 미래 : 부여의 역사성회복과 도시개발의 전략, 도시문제 제28권 제301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유지윤외 1인(2006).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본계획, 전주시
· 이남석(2007). 공주지역 백제문화유적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공주 · 부여 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 등재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 자료집
· 이영범(2005), 도시담론으로서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전략을 통한 도시재생, 문화정책논총 제17집,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이인배(2002). 충청남도 백제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이정형(2007). 「도시재생과 경관만들기_일본의 13 도시재생 프로젝트」. 발언
· 이정형(2008),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도심부 디자인 컨트롤 수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제6호
· 이호정(2008), 역사도시 공주의 건축문화 콘텐츠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제2호 통권 29호
· 일본관광협회(1996), 觀光の魅力, 東京サユ印刷
· 장호수(2006), 문화재학개론, 백산자료원
· 전준호(2005), 고도 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갑영(2002). 국민문화지수 개발 연구, 한국문화정책연구원
· 정성태 · 조세환 · 오휘영(2000), 한국과 일본의 역사도시 경관관리 법규의 비교,
한국조경학회지 제28권 제3호
· 조명래(2000). 문화경제화와 문화도시 계획. 도시연구
· 조성태(2006), 일본 가나자와의 역사문화경관 관리 특성
· 조용기(2006), 고도의 역사적 경관 보존 ·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제30권 제1호
· 주영철(2005). 광주광역시 조선시대 읍성지역을 사례로 한 역사도시 보존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 채미옥(2007),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방안, 백제문화 대토론회,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 최선주(1994). 역사도시 서울의 보존과 개발. 한국건축역사학회 한-중 학술회 자료집
· 최지연(2005). 관광도시의 역사적 전개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정책학회
· 최형오(2005), 문화중심도시에서의 역사문화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 추용욱 · 강준모 · 황기연(2006),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
· 하헌국 · 오문환(1999). 역사도시관광론.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 홍인옥(2002). 포스트모던 도시의 사회 · 문화와 새로운 도시화. 도시연구

·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2006)
· 국토연구원고도보존 기초조사 연구-고도보존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관리 방안, 2007년
· 충청남도,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구상(2006)
·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종합 개발 2차 변경계획(2005)
· 법제처, 법제처_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2008)
· 부여군, 부여군 관광개발 기본계획(2007)
· 충청남도, 충남 古都 옛모습 되살리기(2001)

· 공주시청(http://www.gongju.go.kr)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 네이버(http://www.naver.com)
·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 법제처(http://www.moleg.go.kr)
· 부여군청(htttp://www.buyeo.go.kr)
· 야후(http://kr.dic.yahoo.com)
· 한국문화관광연구원(http://www.kcti.re.kr)

# <부록> 공주부여의 역사문화자원 기초 목록

| NO | 구분 | 세분류 | 자원명 | 종류 | 위치 | 시기 | 소재지 |
|---|---|---|---|---|---|---|---|
| 1 | 전통자원 | 유물 | 의당 금동보살입상 | 국보 | 공주 | 삼국시대 | 중동 284-1 |
| 2 | 전통자원 | 유물 | 갑사삼신불괘불정 | 보물 | 공주 | 조선 | 계룡면 중장리 |
| 3 | 전통자원 | 유물 | 신원사오사나불괘불정 | 보물 | 공주 | 백제 | 계룡면 양화리 |
| 4 | 전통자원 | 유물 | 중동 석조 | 보물 | 공주 | 삼국시대 | 중동 284-1 |
| 5 | 전통자원 | 유물 | 공주반죽동석조 | 보물 | 공주 | 삼국시대 | 〃 |
| 6 | 전통자원 | 유물 | 공주반죽동 당간지주 | 보물 | 공주 | 통일신라 | 반죽동 |
| 7 | 전통자원 | 유물 | 갑사 철 당간지주 | 보물 | 공주 | 통일신라 | 계룡면 중장리 (갑사 경내) |
| 8 | 전통자원 | 유물 | 갑사부도 | 보물 | 공주 | 고려 | 계룡면 중장리 (갑사 경내) |
| 9 | 전통자원 | 유물 | 감지은니묘법연화경(권제 1) | 보물 | 공주 | 고려 | 사곡면 운암리 567 |
| 10 | 전통자원 | 유물 | 감지은니묘법연화경(권제 6) | 보물 | 공주 | 고려 | 〃 |
| 11 | 전통자원 | 유물 | 갑사의 동종 | 보물 | 공주 | 조선 | 계룡면 중장리 |
| 12 | 전통자원 | 유물 | 선조이년간월인석보 판목 | 보물 | 공주 | 조선 | 〃 |
| 13 | 전통자원 | 유물 | 마곡사 오층석탑 | 보물 | 공주 | 고려 | 사곡면 운암리 567 |
| 14 | 전통자원 | 유물 | 마곡사 영산전 | 보물 | 공주 | 조선 | 〃 |
| 15 | 전통자원 | 유물 | 마곡사 대웅보전 | 보물 | 공주 | 백제 | 〃 |
| 16 | 전통자원 | 유물 | 서혈사지 석불좌상 | 보물 | 공주 | 통일신라 | 중동 284-1 |
| 17 | 전통자원 | 유물 | 마곡사 석가모니 | 보물 | 공주 | 조선 | 사곡면 운암리 |
| 18 | 전통자원 | 유물 | 이불괘불정 | 보물 | 공주 | 미상 | |
| 19 | 전통자원 | 유물 | 청양사지 5층석탑 | 보물 | 공주 | 미상 | 반포면 학봉리 |
| 20 | 전통자원 | 유물 | 청양사지 7층석탑 | 보물 | 공주 | 미상 | 〃 |
| 21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공주 공산성 | 사적 | 공주 | 백제 | 산성동 |
| 22 | 전통자원 | 유적 | 공주 송산리 고분군 | 사적 | 공주 | 삼국시대 | 금성동 |

| | | | | | | | |
|---|---|---|---|---|---|---|---|
| 23 | 전통자원 | 유적 | 공주 학산성 도요지 | 사적 | 공주 | 조선 | 반포면 학봉리 |
| 24 | 전통자원 | 유적 |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 | 사적 | 공주 | 청동기 | 장기면 장암리 |
| 25 | 전통자원 | 유적 | 우금치 전적지 | 사적 | 공주 | 조선 | 금학동 |
| 26 | 전통자원 | 유적 | 황새바위 순교지 | 사적 | 공주 | 조선 | 교동 |
| 27 | 전통자원 | 무속건축 | 계룡산중악단 | 유형문화재 | 공주 | 조선 | 계룡면 양화리 8 |
| 28 | 전통자원 | 유물 | 유형장군유물 | 유형문화재 | 공주 | 조선 | 장기면 하봉리 6-2 |
| 29 | 전통자원 | 유물 | 마곡사동제은 입사향로 | 유형문화재 | 공주 | 고려 | 마곡면 운암리 547 |
| 30 | 전통자원 | 유물 | 신원사5층석탑 | 유형문화재 | 공주 | 통일신라 | 계룡면 양화리 8 |
| 31 | 전통자원 | 유물 | 쌍수정사적비 | 유형문화재 | 공주 | 조선 | 금성동 14-4 |
| 32 | 전통자원 | 유물 | 명국삼장비 | 유형문화재 | 공주 | 조선 | 금성동 10-2 |
| 33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공북루 | 유형문화재 | 공주 | 조선 | 금성동 165 |
| 34 | 전통자원 | 유물 | 공주 동원리석탑 | 유형문화재 | 공주 | 고려 | 신풍면 동원리 380 |
| 35 | 전통자원 | 유물 | 갑사석조약사여래입상 | 유형문화재 | 공주 | 통일신라 | 계룡면 중장리 52 |
| 36 | 전통자원 | 유물 | 갑사 석조보살 입상 | 유형문화재 | 공주 | 통일신라 | 〃 |
| 37 | 전통자원 | 유물 | 갑사 사적비 | 유형문화재 | 공주 | 조선 | 〃 |
| 38 | 전통자원 | 유물 | 공주 오룡리귀부 | 유형문화재 | 공주 | 조선 | 이인면 오룡리 195 |
| 39 | 전통자원 | 유물 | 마곡사 동종 | 유형문화재 | 공주 | 조선 | 사곡면 운암리 567 |
| 40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공주향교 | 유형문화재 | 공주 | 조선 | 교동 211 |
| 41 | 전통자원 | 불교건축 | 신원사 대웅전 | 유형문화재 | 공주 | 백제 | 계룡면 양화리 8 |
| 42 | 전통자원 | 유물 | 연평부원군 신도비 | 유형문화재 | 공주 | 조선 | 이인면 만수리 264 |
| 43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선화당 | 유형문화재 | 공주 | 조선 | 웅진동 3-1 |
| 44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포정사 및 삼문 | 유형문화재 | 공주 | 조선 | 웅진동 3-1 |
| 45 | 전통자원 | 유물 | 공주 상신리 당간지주 | 유형문화재 | 공주 | 고려 | 반포면 상신리 |
| 46 | 전통자원 | 불교건축 | 갑사 강당 | 유형문화재 | 공주 | 조선 | 계룡면 중장리 |

| | | | | | | | |
|---|---|---|---|---|---|---|---|
| 47 | 전통자원 | 유물 | 공주 가척리석탑 | 유형문화재 | 공주 | 고려 | 탄천면 가척리 8 |
| 48 | 전통자원 | 효사상 | 효자향덕비 | 유형문화재 | 공주 | 통일신라 | 소학동 76-6 |
| 49 | 전통자원 | 유물 | 초려이유태 유고 | 유형문화재 | 공주 | 조선 | 상왕리 302 |
| 50 | 전통자원 | 불교건축 | 갑사 대웅전 | 유형문화재 | 공주 | 조선 | 계룡면 중장리 |
| 51 | 전통자원 | 불교건축 | 갑사 대적전 | 유형문화재 | 공주 | 조선 | 〃 |
| 52 | 전통자원 | 불교건축 | 마곡사 심검당 및 고방 | 유형문화재 | 공주 | 고려 | 사곡면 운암리 |
| 53 | 전통자원 | 유물 | 포저유서및곡문집 판각 | 유형문화재 | 공주 | 조선 | 〃 |
| 54 | 전통자원 | 유물 | 남평조씨 내자일기 | 유형문화재 | 공주 | 조선 | 반포면 성강리 201 |
| 55 | 전통자원 | 유물 | 갑사석조약사여래입상 | 유형문화재 | 공주 | 고려 | 계룡면 중장리 52 |
| 56 | 전통자원 | 유적 | 숭선군묘 | 기념물 | 공주 | 조선 | 이인면 오룡리 2-1 |
| 57 | 전통자원 | 유적 | 공주신관리 석실고분 | 기념물 | 공주 | 삼국시대 | 신관동 14 |
| 58 | 근대자원 | 유적 | 김옥균 선생 유허 | 기념물 | 공주 | 근대 | 정안면 광정리 38 |
| 59 | 전통자원 | 유적 | 영규대사묘 | 기념물 | 공주 | 조선 | 계룡면 유평리 산5 |
| 60 | 전통자원 | 유적 | 김종서장군묘 | 기념물 | 공주 | 조선 | 장기면 대교리 산45 |
| 61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계룡산초혼각지 | 기념물 | 공주 | 고려 | 반포면 학봉리 산789 |
| 62 | 전통자원 | 유적 | 공주 귀산리 만경노씨 삼의사생가지 | 기념물 | 공주 | 조선 | 우성면 귀산리 94 |
| 63 | 전통자원 | 사지 | 남혈사지 | 기념물 | 공주 | 통일신라 | 금학동 93외 2필 |
| 64 | 전통자원 | 사지 | 수원사지 | 기념물 | 공주 | 통일신라 | 옥룡동 111회 2필 |
| 65 | 전통자원 | 사지 | 서혈사지 | 기념물 | 공주 | 통일신라 | 웅진동 207-3 |
| 66 | 전통자원 | 사지 | 주미사지 | 기념물 | 공주 | 백제 | 주미동 567외 2필 |
| 67 | 전통자원 | 사지 | 구룡사지 | 기념물 | 공주 | 고려 | 반포면 상신리 389외 4필 |
| 68 | 전통자원 | 유적 | 공산성 연지 | 기념물 | 공주 | 조선 | 금성동 58 |
| 69 | 전통자원 | 유적 | 충현서원 유적 | 기념물 | 공주 | 조선 | 반포면 공암리 381 |
| 70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고간원지 | 기념물 | 공주 | 고려 | 유구면 추계리 산32-1외 1필 |

| | | | | | | | |
|---|---|---|---|---|---|---|---|
| 71 | 전통자원 | 유적 | 옥녀봉성 | 기념물 | 공주 | 삼국시대 | 옥룡동 산2-1 |
| 72 | 근대자원 | 종교건축 | 중동성당 | 기념물 | 공주 | 근대 | 중동 31-2 |
| 73 | 전통자원 | 유적 | 정지산 백제유적 | 기념물 | 공주 | 백제 | 금성동 산1외 4필 |
| 74 | 전통자원 | 무형자원 | 계룡백일주 | 무형문화재 | 공주 | 조선 | 봉정동 339 |
| 75 | 전통자원 | 무형자원 | 탄천장승제 | 무형문화재 | 공주 | 미상 | 탄천면 송학리 |
| 76 | 전통자원 | 무형자원 | 공주 봉현리 상여소리 | 무형문화재 | 공주 | 미상 | 우성면 봉현리 |
| 77 | 전통자원 | 유물 | 초려 이유태가의 유물 | 민속자료 | 공주 | 조선 | 상왕동 302 |
| 78 | 전통자원 | 유물 | 세조대왕련 | 민속자료 | 공주 | 조선 | 사곡면 운암리 |
| 79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공산성 진남루 | 문화재자료 | 공주 | 조선 | 금성동 산1 |
| 80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공산성 쌍수정 | 문화재자료 | 공주 | 조선 | 〃 |
| 81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공산성 광복루 | 문화재자료 | 공주 | 조선 | 〃 |
| 82 | 전통자원 | 불교건축 | 영은사 대웅전 | 문화재자료 | 공주 | 조선 | 〃 |
| 83 | 전통자원 | 불교건축 | 갑사 표충원 | 문화재자료 | 공주 | 조선 | 계룡면 중장리 54 |
| 84 | 전통자원 | 불교건축 | 갑사 삼성각 | 문화재자료 | 공주 | 조선 | 〃 |
| 85 | 전통자원 | 불교건축 | 갑사 팔상전 | 문화재자료 | 공주 | 조선 | 〃 |
| 86 | 전통자원 | 유물 | 갑사 중사자암 지삼층 석탑 | 문화재자료 | 공주 | 조선 | 〃 |
| 87 | 전통자원 | 유물 | 영규대사비 | 문화재자료 | 공주 | 조선 | 계룡면 월암리 |
| 88 | 전통자원 | 불교건축 | 동학사 삼성각 | 문화재자료 | 공주 | 통일신라 | 반포면 학봉리 |
| 89 | 전통자원 | 유물 | 동학사 삼층석탑 | 문화재자료 | 공주 | 통일신라 | 〃 |
| 90 | 전통자원 | 불교건축 | 삼은각 | 문화재자료 | 공주 | 고려 | 반포면 학봉리 |
| 91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충현서원 | 문화재자료 | 공주 | 조선 | 반포면 공암리 381 |
| 92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덕천군 사우 | 문화재자료 | 공주 | 조선 | 의당면 태산리 101 |
| 93 | 전통자원 | 불교건축 | 마곡사 천왕문 | 문화재자료 | 공주 | 조선 | 사곡면 운암리 567 |
| 94 | 전통자원 | 불교건축 | 마곡사 국사당 | 문화재자료 | 공주 | 조선 | 〃 |

| | | | | | | | |
|---|---|---|---|---|---|---|---|
| 95 | 전통자원 | 불교건축 | 마곡사 명부전 | 문화재자료 | 공주 | 조선 | 〃 |
| 96 | 전통자원 | 불교건축 | 마곡사 응진전 | 문화재자료 | 공주 | 조선 | 〃 |
| 97 | 전통자원 | 불교건축 | 마곡사 해탈문 | 문화재자료 | 공주 | 조선 | 〃 |
| 98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숙모전 | 문화재자료 | 공주 | 조선 | 반포면 학봉리 |
| 99 | 전통자원 | 유물 | 천진보탑 | 문화재자료 | 공주 | 백제 | 계룡면 중장리 |
| 100 | 전통자원 | 유물 | 공주목사 김효성비 | 문화재자료 | 공주 | 조선 | 금성동 |
| 101 | 근대자원 | 근대건축 | 공주 금강철교 | 등록문화재 | 공주 | 근대 | 공주시 금성동 164-1, 신관동 553 |
| 102 | 근대자원 | 근대건축 | 공주 중학동 구 선교사가옥 | 등록문화재 | 공주 | 근대 | 공주시 중학동 9-1 |
| 103 | 전통자원 | 유적 | 교촌리 고분군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04 | 전통자원 | 유적 | 금성동 정지산 백제유적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05 | 전통자원 | 유적 | 웅진동 고분군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06 | 전통자원 | 유적 | 박산소 고분군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07 | 전통자원 | 유적 | 고마나루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08 | 전통자원 | 유적 | 신관동 취리산 고분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09 | 전통자원 | 유물 | 능암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10 | 전통자원 | 유적 | 옥룡동 보통골 고분군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11 | 전통자원 | 사지 | 반죽동 대통사지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12 | 전통자원 | 유물 | 반죽동 대통교 초석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13 | 전통자원 | 유적 | 봉정동 고분군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14 | 전통자원 | 유적 | 금학동 고분군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15 | 전통자원 | 유적 | 신기동 능암사지 및 고분군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16 | 전통자원 | 유적 | 옥룡동 수원사지 석탑지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17 | 전통자원 | 유적 | 옥룡동 월성산 고분군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18 | 전통자원 | 유적 | 교동 유적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 | | | | | | |
|---|---|---|---|---|---|---|---|
| 119 | 전통자원 | 유적 | 공산성 백제 건물지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20 | 전통자원 | 유적 | 서문지 후면 건물지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21 | 전통자원 | 유적 | 영은사 앞 백제연지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22 | 전통자원 | 유적 | 산성동 유적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23 | 전통자원 | 유적 | 공산성? 건물지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24 | 전통자원 | 유물 | 백제?신라 회맹단지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25 | 전통자원 | 유물 | 공주 반죽동 석조여래좌상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26 | 전통자원 | 유물 | 서혈사지 석조비로자나불상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27 | 전통자원 | 유물 | 서혈사지 석조여래좌상 ②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28 | 전통자원 | 사지 | 금학동 사지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29 | 전통자원 | 유물 | 서혈사지 석탑지대석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30 | 전통자원 | 유적 | 수원사지 석탑지 | 미지정 | 공주 | 삼국시대 | |
| 131 | 전통자원 | 유물 | 봉황동 석사자 | 미지정 | 공주 | 고려 | |
| 132 | 전통자원 | 효사상 | 효자이복정려비 | 미지정 | 공주 | 고려 | |
| 133 | 전통자원 | 유물 | 금학동사지 석조여래좌상 | 미지정 | 공주 | 고려 | |
| 134 | 전통자원 | 유물 | 금학동 사지 석불광배 | 미지정 | 공주 | 고려 | |
| 135 | 전통자원 | 사지 | 금성동 정지사지 | 미지정 | 공주 | 조선 | |
| 136 | 전통자원 | 유물 | 반죽동 포교당 동종 | 미지정 | 공주 | 조선 | |
| 137 | 전통자원 | 사지 | 공주 웅진동 사지 | 미지정 | 공주 | 조선 | |
| 138 | 전통자원 | 유물 | 공산성 내 공산성 서문지 입구 비석군 | 미지정 | 공주 | 조선 | |
| 139 | 전통자원 | 유물 | 제민천교 영세비 | 미지정 | 공주 | 조선 | |
| 140 | 전통자원 | 불교건축 | 영은사 內 4동 | 미지정 | 공주 | 조선 | |
| 141 | 전통자원 | 유물 | 금학동 마애지장보살입상 | 미지정 | 공주 | 조선 | |
| 142 | 전통자원 | 사지 | 공주 신기동 소학리사지 | 미지정 | 공주 | 조선 | |

| | | | | | | | |
|---|---|---|---|---|---|---|---|
| 143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공주 신기동 오대붕 정려 | 미지정 | 공주 | 조선 | |
| 144 | 전통자원 | 유물 | 공주 옥룡동 월성산 봉수대 | 미지정 | 공주 | 조선 | |
| 145 | 근대자원 | 근대건축 | 조선식산은행 공주지점(제일은행 공주지점) | 미지정 | 공주 | 근대 | |
| 146 | 근대자원 | 근대건축 | 충남금융조합연합회 회관(舊공주시청, 공주읍사무소) | 미지정 | 공주 | 근대 | |
| 147 | 근대자원 | 근대건축 | 영명학교 구 본관 | 미지정 | 공주 | 근대 | |
| 148 | 근대자원 | 근대건축 | 선교사 주택 (CMCE 선교센타) | 미지정 | 공주 | 근대 | |
| 149 | 근대자원 | 근대건축 | 금성금융조합 (엽연초 조합) | 미지정 | 공주 | 근대 | |
| 150 | 근대자원 | 근대건축 | 공제의원 | 미지정 | 공주 | 근대 | |
| 151 | 근대자원 | 근대건축 | 예술가의 정원 (개인화실) | 미지정 | 공주 | 근대 | |
| 152 | 근대자원 | 근대건축 | 공주교육대학교 승명관 | 미지정 | 공주 | 근대 | |
| 153 | 근대자원 | 근대건축 | 봉황초등학교 교장사택 | 미지정 | 공주 | 근대 | |
| 154 | 전통자원 | 유적 | 공주 웅진동 한산성 | 미지정 | 공주 | 백제 | |
| 155 | 전통자원 | 유적 | 공주 공산성 동문지 | 미지정 | 공주 | 조선 | |
| 156 | 전통자원 | 유물 | 정림사지 오층석탑 | 국보 | 부여 | 백제 | 정림사지내 |
| 157 | 전통자원 | 유물 | 금동미륵보살반가상 | 국보 | 부여 | 백제 | 국립부여박물관 |
| 158 | 전통자원 | 유물 | 백제금동대향로 | 국보 | 부여 | 백제 | 국립부여박물관 |
| 159 | 전통자원 | 유물 | 백제창왕명사리감 | 국보 | 부여 | 백제 | 국립부여박물관 |
| 160 | 전통자원 | 유물 | 금동관세음보살상 | 국보 | 부여 | 백제 | 국립부여박물관 |
| 161 | 전통자원 | 유물 | 당유인원기공비 | 보물 | 부여 | 백제 | 정림사지내 |
| 162 | 전통자원 | 유물 | 보광사 대보광선사비 | 보물 | 부여 | 고려 | 국립부여박물관 |
| 163 | 전통자원 | 유물 | 부여정림사지석불좌상 | 보물 | 부여 | 백제 | 부여, 동남 254 |
| 164 | 전통자원 | 유물 | 부여장하리삼층석탑 | 보물 | 부여 | 고려 | 장암, 장하 536 |
| 165 | 전통자원 | 유물 | 무량사오층석탑 | 보물 | 부여 | 고려 | 국립부여박물관 |
| 166 | 전통자원 | 유물 | 부여석조 | 보물 | 부여 | 백제 | 국립부여박물관 |

| | | | | | | | |
|---|---|---|---|---|---|---|---|
| 167 | 전통자원 | 유물 | 금동석가여래입상 | 보물 | 부여 | 백제 | 국립부여박물관 |
| 168 | 전통자원 | 유물 |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 보물 | 부여 | 백제 | 임천, 구교 761 |
| 169 | 전통자원 | 유물 | 무량사석등 | 보물 | 부여 | 고려 | 외산, 만수 116 |
| 170 | 전통자원 | 유물 | 군수리석조여래입상 | 보물 | 부여 | 백제 | 국립부여박물관 |
| 171 | 전통자원 | 유물 | 군수리금동보살입상 | 보물 | 부여 | 백제 | 국립부여박물관 |
| 172 | 전통자원 | 불교건축 | 무량사극락전 | 보물 | 부여 | 조선 | 외산, 만수 116 |
| 173 | 전통자원 | 유물 | 무량사미륵불괘불탱 | 보물 | 부여 | 조선 | 외산, 만수 116 |
| 174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부여성흥안성 | 사적 | 부여 | 백제 | 임천, 군사 산 1-1외 |
| 175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부여부소산성 | 사적 | 부여 | 백제 | 부여, 쌍북 산 4외 |
| 176 | 전통자원 | 유적 | 부여능산리고분군 | 사적 | 부여 | 백제 | 부여, 능산 산 15외 |
| 177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부여청마산성 | 사적 | 부여 | 백제 | 부여, 능산 산 1-1외 |
| 178 | 전통자원 | 사지 | 부여군수리사지 | 사적 | 부여 | 백제 | 부여, 군수 19외 |
| 179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부여나성 | 사적 | 부여 | 백제 | 부여, 염창 565외 |
| 180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부여청산성 | 사적 | 부여 | 백제 | 부여, 쌍북 6외 |
| 181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부여석성산성 | 사적 | 부여 | 백제 | 석성, 현내 83외 |
| 182 | 전통자원 | 유적 | 부여쌍북리요지 | 사적 | 부여 | 백제 | 부여, 쌍북 산 30-14 |
| 183 | 전통자원 | 유적 | 궁남지 | 사적 | 부여 | 백제 | 부여, 동남 117외 |
| 184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증산성 | 사적 | 부여 | 백제 | 규암, 신성 88외 |
| 185 | 전통자원 | 유적 |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 사적 | 부여 | 청동기 | 초촌, 송국 24-1외 |
| 186 | 전통자원 | 사지 | 부여정림사지 | 사적 | 부여 | 백제 | 부여, 동남 254외 |
| 187 | 전통자원 | 유적 | 부여정암리와요지 | 사적 | 부여 | 백제 | 장암, 정암 41외 |
| 188 | 전통자원 | 유물 | 부여능안골고분군 | 사적 | 부여 | 백제 | 부여, 능산 75-7 |
| 189 | 전통자원 | 유적 | 부여화지산일원유적 | 사적 | 부여 | 백제 | 부여, 동남 105외 |
| 190 | 전통자원 | 사지 | 왕흥사지 | 사적 | 부여 | 백제 | 규암, 신리 32-7외 |

| | | | | | | | |
|---|---|---|---|---|---|---|---|
| 191 | 전통자원 | 유적 | 부여 관북리백제유적 | 사적 | 부여 | 백제 | 부여, 관북 33외 |
| 192 | 전통자원 | 사지 | 능산리사지 | 사적 | 부여 | 백제 | 부여, 능산 산 15-1외 |
| 193 | 전통자원 | 사지 | 금강사지 | 사적 | 부여 | 백제 | 은산, 금공 12-2외 |
| 194 | 전통자원 | 유적 | 구드래일원 | 사적 및 명승 | 부여 | 백제 | 부여, 구교 |
| 195 | 전통자원 | 유물 | 보부상유품 | 중요민속자료 | 부여 | 조선 | 국립부여박물관 |
| 196 | 전통자원 | 유물 | 보부상유품 | 중요민속자료 | 부여 | 조선 | 임천, 탑산 546 |
| 197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부여민칠식가옥 | 중요민속자료 | 부여 | 조선 | 부여, 중정 537 |
| 198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부여정계채가옥 | 중요민속자료 | 부여 | 조선 | 부여, 군수 462.2 |
| 199 | 전통자원 | 무형자원 | 은산별신제 | 무형문화재 | 부여 | 미상 | 은산, 은산 114 |
| 200 | 전통자원 | 무형자원 | 은산별신제 | 무형문화재 | 부여 | 미상 | 은산, 은산 143 |
| 201 | 전통자원 | 무형자원 | 은산별신제 | 무형문화재 | 부여 | 미상 | 은산, 은산 111 |
| 202 | 전통자원 | 유물 | 부여세탑리오층석탑 | 유형문화재 | 부여 | 고려 | 초촌, 세탑 311 |
| 203 | 전통자원 | 유물 | 현내리부도 | 유형문화재 | 부여 | 고려 | 석성, 현내 375-2 |
| 204 | 전통자원 | 유물 | 금성산 석불좌상 | 유형문화재 | 부여 | 고려 | 부여, 동남 산 81-1 |
| 205 | 전통자원 | 유물 | 부여석목리 석조비로사나불 | 유형문화재 | 부여 | 고려 | 부여, 석목 276 |
| 206 | 전통자원 | 유물 | 무량사김시습부도 | 유형문화재 | 부여 | 조선 | 외산, 만수 116 |
| 207 | 전통자원 | 유물 | 부여홍양리오층석탑 | 유형문화재 | 부여 | 고려 | 홍산, 홍양 190-1 |
| 208 | 전통자원 | 유물 | 의열사비 | 유형문화재 | 부여 | 조선 | 부여, 동남 산 44 |
| 209 | 전통자원 | 유물 | 부산각서석 | 유형문화재 | 부여 | 조선 | 규암, 진변 산 3 |
| 210 | 전통자원 | 유물 | 무량사당간지주 | 유형문화재 | 부여 | 고려 | 외산, 만수 116 |
| 211 | 전통자원 | 유물 | 김시습영정 | 유형문화재 | 부여 | 조선 | 외산, 만수 116 |
| 212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부여동헌 | 유형문화재 | 부여 | 조선 | 부여, 관북 36-1 |
| 213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홍산객사 | 유형문화재 | 부여 | 조선 | 홍산, 북촌 211-2 |

| | | | | | | | |
|---|---|---|---|---|---|---|---|
| 214 | 전통자원 | 유물 | 무량사오층석탑 출토유물 | 유형문화재 | 부여 | 고려 | 외산, 만수 116 |
| 215 | 전통자원 | 유물 | 사택지적비 | 유형문화재 | 부여 | 백제 | 국립부여박물관 |
| 216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석성동헌 | 유형문화재 | 부여 | 조선 | 석성, 석성 763-1 |
| 217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홍학당 | 유형문화재 | 부여 | 미상 | 장암, 장하 681 |
| 218 | 전통자원 | 유물 | 홍산상천리마애불입상 | 유형문화재 | 부여 | 고려 | 홍산, 상천 산 1041 |
| 219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홍산동헌 | 유형문화재 | 부여 | 조선 | 홍산, 남촌 187 |
| 220 | 전통자원 | 유물 | 추포선생 종가문서 | 유형문화재 | 부여 | 조선 | 부여읍 용정리 산10 |
| 221 | 전통자원 | 유물 | 부여김동효영정 | 유형문화재 | 부여 | 조선 | 홍산, 조현 309 |
| 222 | 전통자원 | 무형자원 | 산유화가 | 무형문화재 | 부여 | 백제 | 부여, 관북 128-1 |
| 223 | 전통자원 | 무형자원 | 산유화가 | 무형문화재 | 부여 | 백제 | 세도, 동사 356 |
| 224 | 전통자원 | 무형자원 | 산유화가 | 무형문화재 | 부여 | 백제 | 부여, 쌍북 591 |
| 225 | 전통자원 | 무형자원 | 내포제시조 | 무형문화재 | 부여 | 조선 | 규암, 내 460 |
| 226 | 전통자원 | 무형자원 | 내포제시조 | 무형문화재 | 부여 | 조선 | 부여, 구교 407 |
| 227 | 전통자원 | 무형자원 | 부여용정리상여소리 | 무형문화재 | 부여 | 조선 | 부여, 용정 262 |
| 228 | 전통자원 | 무형자원 | 부여용정리상여소리 | 무형문화재 | 부여 | 조선 | 부여, 용정 198 |
| 229 | 전통자원 | 무형자원 | 부여용정리상여소리 | 무형문화재 | 부여 | 조선 | 부여, 동남 313 |
| 230 | 전통자원 | 무형자원 | 부여용정리상여소리 | 무형문화재 | 부여 | 조선 | 부여, 용정 42 |
| 231 | 전통자원 | 무형자원 | 세도두레풍장 | 무형문화재 | 부여 | 조선 | 세도, 간대 399 |
| 232 | 전통자원 | 무형자원 | 세도두레풍장 | 무형문화재 | 부여 | 조선 | 세도, 수고 5 |
| 233 | 전통자원 | 무형자원 | 세도두레풍장 | 무형문화재 | 부여 | 조선 | 세도, 동사 349 |
| 234 | 전통자원 | 무형자원 | 내지리단잡기 | 무형문화재 | 부여 | 백제 | 은산, 내지 471 |
| 235 | 전통자원 | 유물 | 홍산만덕교비 | 기념물 | 부여 | 조선 | 부여, 홍산 북촌 211-2 |
| 236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창열사 | 기념물 | 부여 | 조선 | 부여, 구룡, 금산 519 |
| 237 | 전통자원 | 유적 | 전득우묘 | 기념물 | 부여 | 조선 | 부여, 석성, 봉정 산 17-1 |

| | | | | | | | |
|---|---|---|---|---|---|---|---|
| 238 | 전통자원 | 사지 | 호암사지 | 기념물 | 부여 | 백제 | 부여, 규암, 호암 156-2외 |
| 239 | 전통자원 | 사지 | 왕흥사지 | 기념물 | 부여 | 백제 | |
| 240 | 전통자원 | 사지 | 임강사지 | 기념물 | 부여 | 백제 | 부여, 현북 51 |
| 241 | 전통자원 | 유물 | 산직리지석묘 | 기념물 | 부여 | 청동기 | 부여, 초촌, 산직 562 |
| 242 | 전통자원 | 유적 | 쌍북리북요지 | 기념물 | 부여 | 백제 | 부여, 쌍북 641 |
| 243 | 전통자원 | 유적 | 전 백제왕궁지 유적 | 기념물 | 부여 | 백제 | |
| 244 | 전통자원 | 유적 | 태양리백제석실고분 | 기념물 | 부여 | 백제 | 부여, 구룡, 태양 281-1 |
| 245 | 전통자원 | 사지 | 용정리사지 | 기념물 | 부여 | 백제 | 부여, 부여, 용정 35외 |
| 246 | 전통자원 | 유적 | 천정대 | 기념물 | 부여 | 백제 | 부여, 부여, 호암 산 5외 |
| 247 | 전통자원 | 사지 | 동남리사지 | 기념물 | 부여 | 백제 | 부여, 부여, 동남 211-1외 |
| 248 | 전통자원 | 사지 | 동남리전천왕사지 | 기념물 | 부여 | 백제 | 부여, 부여, 동남 산 16-1 |
| 249 | 전통자원 | 유적 | 중정리건물지 | 기념물 | 부여 | 백제 | 부여, 부여, 중정 552 |
| 250 | 전통자원 | 유적 | 용정리소룡골건물지 | 기념물 | 부여 | 백제 | 부여, 부여, 용정 409외 |
| 251 | 전통자원 | 유적 | 지선리고분군 | 기념물 | 부여 | 백제 | 부여, 외산, 지선 산 20외 |
| 252 | 전통자원 | 유적 | 부여구아리백제유적 | 기념물 | 부여 | 백제 | 부여, 부여, 구아 64외 |
| 253 | 전통자원 | 사지 | 부여보광사지 | 기념물 | 부여 | 백제 | 부여, 임천, 가신 618-1외 |
| 254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부여향교 | 기념물 | 부여 | 조선 | 부여, 부여, 동남 144 |
| 255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석성향교 | 기념물 | 부여 | 조선 | 부여, 석성, 석성 64 |
| 256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임천향교 | 기념물 | 부여 | 조선 | 부여, 임천, 군사 250 |
| 257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홍산향교 | 기념물 | 부여 | 조선 | 부여, 홍산, 교원 217 |
| 258 | 근대자원 | 종교건축 | 부여금사리성당 | 기념물 | 부여 | 근대 | 부여, 구룡, 금사 334 |
| 259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은산당산성 | 기념물 | 부여 | 백제 | 부여, 은산, 은산 산 1-1 |
| 260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이정우가옥 | 민속자료 | 부여 | 조선 | 홍산, 북촌 183-1 |
| 261 | 전통자원 | 유물 | 금암리오층석탑 | 문화재자료 | 부여 | 고려 | 규암, 금암 381 |

| | | | | | | | |
|---|---|---|---|---|---|---|---|
| 262 | 전통자원 | 유물 | 화성리오층석탑 | 문화재자료 | 부여 | 고려 | 외산, 화성 478-1 |
| 263 | 전통자원 | 유물 | 대조사석탑 | 문화재자료 | 부여 | 고려 | 임천, 구교 761 |
| 264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퇴수(반산)서원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임천, 만사 191 |
| 265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동곡서원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세도, 동사 622 |
| 266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청일사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홍산, 교원 190 |
| 267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부여향교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부여읍 동남리 1441 |
| 268 | 전통자원 | 불교건축 | 고란사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부여, 쌍북 산 1 |
| 269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사비루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부여, 쌍북 산 1 |
| 270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수북정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규암, 규암 147-2 |
| 271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영일루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부여, 쌍북 산 4-1 |
| 272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칠산서원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임천, 칠산 384 |
| 273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팔각정 | 문화재자료 | 부여 | 백제 | 부여, 쌍북 6446-10 |
| 274 | 전통자원 | 유물 | 동남리석탑 | 문화재자료 | 부여 | 고려 | 국립부여박물관 |
| 275 | 전통자원 | 유물 | 박물관석탑 | 문화재자료 | 부여 | 고려 | 국립부여박물관 |
| 276 | 전통자원 | 유물 | 박물관석조여래입상 | 문화재자료 | 부여 | 고려 | 국립부여박물관 |
| 277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창강서원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부여, 저석 73-2 |
| 278 | 근대자원 | 유교건축 | 백화정 | 문화재자료 | 부여 | 근대 | 부여, 쌍북 산1 |
| 279 | 전통자원 | 유적 | 군창지 | 문화재자료 | 부여 | 백제 | 부여, 쌍북 산4 |
| 280 | 전통자원 | 유적 | 낙화암 | 문화재자료 | 부여 | 백제 | 부여, 쌍북 산1 |
| 281 | 전통자원 | 유물 | 황일호의 묘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부여, 가증 산 12 |
| 282 | 전통자원 | 유물 | 김거익의 묘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부여, 중정 76 |
| 283 | 전통자원 | 유물 | 의열사비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부여, 동남 산3 |
| 284 | 근대자원 | 유교건축 | 삼충사 | 문화재자료 | 부여 | 근대 | 부여, 쌍북 40-1 |
| 285 | 근대자원 | 유교건축 | 도강영당 | 문화재자료 | 부여 | 근대 | 부여, 관북 40-1 |

| | | | | | | | |
|---|---|---|---|---|---|---|---|
| 286 | 전통자원 | 유물 | 선조대왕태실비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충화, 오덕 237 |
| 287 | 전통자원 | 유물 | 가교비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옥산, 상기 산1 |
| 288 | 전통자원 | 유물 | 조신의 묘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장암, 점상 168-1 |
| 289 | 전통자원 | 유물 | 유경종묘내 유물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국립부여박물관 |
| 290 | 전통자원 | 유물 | 동사리석탑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국립부여박물관 |
| 291 | 전통자원 | 식물(나무) | 부여동매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규암, 진변 38-4 |
| 292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덕림병사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장암, 점상 168-1 |
| 293 | 전통자원 | 유물 | 민입암집판각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규암, 모 290 |
| 294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홍산태봉산성 | 문화재자료 | 부여 | 백제 | 홍산, 북촌 산 12 |
| 295 | 근대자원 | 유물 | 부여천진전단군화상 | 문화재자료 | 부여 | 근대 | 국립부여박물관 |
| 296 | 전통자원 | 유물 | 부여계성군영정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홍산, 조현 309 |
| 297 | 전통자원 | 유적 | 부여저동리쌀바위 | 문화재자료 | 부여 | 조선 | 내산, 저동 21-5 |
| 298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만가대팔각정 | 향토유적 | 부여 | 백제 | 구룡, 용담 858-1 |
| 299 | 전통자원 | 유물 | 유태사지묘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임천, 군사 산 1-1 |
| 300 | 전통자원 | 유물 | 오덕사어필각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충화, 오덕 284 |
| 301 | 전통자원 | 유물 | 오덕사괘불화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충화, 오덕 284 |
| 302 | 전통자원 | 유물 | 조왕사석탑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부여, 동남 20-3 |
| 303 | 전통자원 | 유물 | 도천사사적비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은산, 대양 455 |
| 304 | 전통자원 | 유적 | 독락정지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구룡, 금사 276-3 |
| 305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영모당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홍산, 조현 309 |
| 306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신정리향양박씨재실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부여, 신정 21 |
| 307 | 전통자원 | 유물 | 은산금공리산신도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은산, 금공 |
| 308 | 근대자원 | 불교건축 | 팔충사 | 향토유적 | 부여 | 근대 | 충화, 지석 369 |
| 309 | 전통자원 | 유물 | 충화지석리지석묘 | 향토유적 | 부여 | 청동기 | 충화, 지석 369 |

| | | | | | | | |
|---|---|---|---|---|---|---|---|
| 310 | 전통자원 | 유물 | 무량사극락적후불화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외산, 만수 116 |
| 311 | 전통자원 | 사지 | 도천사지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온산, 대양 455외 |
| 312 | 전통자원 | 유물 | 박경후영정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은산, 가곡 132 |
| 313 | 전통자원 | 유물 | 나복리고인돌 | 향토유적 | 부여 | 청동기 | 규암, 나복 731 |
| 314 | 전통자원 | 유물 | 귀덕리고인돌 | 향토유적 | 부여 | 청동기 | 세도, 귀덕 산 9 |
| 315 | 전통자원 | 유물 | 오량리고인돌 | 향토유적 | 부여 | 청동기 | 양화, 오량 41-7 |
| 316 | 전통자원 | 유물 | 석성리고인돌군 | 향토유적 | 부여 | 청동기 | 석성, 석성 552 |
| 317 | 전통자원 | 유물 | 태양리고인돌군 | 향토유적 | 부여 | 청동기 | 구룡, 태양 산 27-3 |
| 318 | 전통자원 | 유물 | 송암리호암고인돌군 | 향토유적 | 부여 | 청동기 | 남, 송암 21-1 |
| 319 | 전통자원 | 유물 | 내곡리고인돌 | 향토유적 | 부여 | 청동기 | 남, 내곡 215-31 |
| 320 | 전통자원 | 유물 | 북고리고인돌 | 향토유적 | 부여 | 청동기 | 장암, 북고 산 9-3 |
| 321 | 전통자원 | 유물 | 안서리고인돌 | 향토유적 | 부여 | 청동기 | 옥산, 안서 346-7 |
| 322 | 전통자원 | 유물 | 함양리고인돌 | 향토유적 | 부여 | 청동기 | 규암, 함양 323 |
| 323 | 전통자원 | 유물 | 현미리고인돌 | 향토유적 | 부여 | 청동기 | 충화, 현미 681 |
| 324 | 전통자원 | 유물 | 왕의영당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양화, 초왕 72 |
| 325 | 전통자원 | 종교건축 | 천진전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장암, 장하 450 |
| 326 | 전통자원 | 유교건축 | 간곡서원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임천, 구교 114 |
| 327 | 전통자원 | 유적 | 성흥산성고분군 | 향토유적 | 부여 | 백제 | 임천, 구교 산 12-1 |
| 328 | 전통자원 | 유물 | 이산진묘, 비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은산, 은산 산 1-1 |
| 329 | 전통자원 | 유적 | 정흥인묘역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부여, 능산 산 30-1 |
| 330 | 전통자원 | 유물 | 정득열묘, 비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부여, 능산 산 30-1 |
| 331 | 전통자원 | 유물 | 홍윤성묘, 비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은산, 경둔 산 56-1 |
| 332 | 전통자원 | 유물 | 윤집신도비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내산, 은해 산 19-50 |
| 333 | 전통자원 | 효사상 | 황일호신도비및황진효자각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부여, 가중 58 |

| | | | | | | | |
|---|---|---|---|---|---|---|---|
| 334 | 전통자원 | 사지 | 가탑리사지 | 향토유적 | 부여 | 백제 | 부여, 가탑 273-1 |
| 335 | 전통자원 | 사지 | 서복사지 | 향토유적 | 부여 | 백제 | 부여, 구아 산 1-2 |
| 336 | 전통자원 | 유물 | 만덕교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홍산, 북촌 428 |
| 337 | 전통자원 | 유물 | 무량사극락전삼존불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외산, 만수 116 |
| 338 | 전통자원 | 유적 | 무량사부도군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외산, 만수 125-1 |
| 339 | 전통자원 | 유물 | 무량사동종 | 향토유적 | 부여 | 조선 | 외산, 만수 116 |
| 340 | 전통자원 | 유적 | 무량사구지 | 향토유적 | 부여 | 고려 | 외산, 만수 96-1 |
| 341 | 근대자원 | 근대건축 | 부여 반교마을 옛 담장 | 등록문화재 | 부여 | 근대 |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176 등 |
| 342 | 근대자원 | 근대건축 | 부여 신동엽 가옥터 | 등록문화재 | 부여 | 근대 | 부여군 동남리 501-3 |
| 343 | 전통자원 | 유적 | 부여 부소산 와적기단건물지 | 미지정 | 부여 | 백제 | 부여읍 쌍북리 |
| 344 | 전통자원 | 유적 | 부여 부소산 수혈집자리 | 미지정 | 부여 | 백제 | 부여읍 쌍북리 |
| 345 | 전통자원 | 사지 | 부여 구아리 향교밭 폐사지 | 미지정 | 부여 | 백제 | 부여읍 구아리 |
| 346 | 전통자원 | 사지 | 부여 부소산 서복사지 | 미지정 | 부여 | 백제 | 부여읍 쌍북리 |
| 347 | 전통자원 | 유적 | 부여 군창지 | 미지정 | 부여 | 백제 | 부여읍 쌍북리 산4 |
| 348 | 전통자원 | 사지 | 부여 구교리 폐사지 | 미지정 | 부여 | 백제 | 부여읍 구교리 |
| 349 | 전통자원 | 유적 | 부여 구교리 관아 및 주변건물지 | 미지정 | 부여 | 백제 | 부여읍 구교리 |
| 350 | 전통자원 | 사지 | 부여 쌍북리사지 | 미지정 | 부여 | 백제 | 부여읍 쌍북리 |
| 351 | 전통자원 | 사지 | 부여 구교리?학리 폐사지 | 미지정 | 부여 | 백제 | 부여읍 구교리 84 |
| 352 | 전통자원 | 관영건축 | 부여 금성산성 | 미지정 | 부여 | 백제 | 부여읍 동남리 |
| 353 | 전통자원 | 유적 | 부여 청산성 화장묘 | 미지정 | 부여 | 백제 | 부여읍 쌍북리 전4번지 |
| 354 | 전통자원 | 유적 | 부여 쌍북리 건물지 | 미지정 | 부여 | 백제 | 부여읍 쌍북리 |
| 355 | 전통자원 | 유적 | 부여 용정리 소룡골 와요지 | 미지정 | 부여 | 백제 | 부여읍 용정리 소룡골 |
| 356 | 전통자원 | 사지 | 부여 석목리 폐사지 | 미지정 | 부여 | 백제 | 부여읍 석목리 7 |
| 357 | 전통자원 | 사지 | 부여 쌍북리 폐사지 | 미지정 | 부여 | 백제 | 부여읍 쌍북리(부여초교) |

| | | | | | | | |
|---|---|---|---|---|---|---|---|
| 358 | 전통<br>자원 | 사지 | 부여 석목리 관음사지 | 미지정 | 부여 | 백제 | 부여읍 석목리 |
| 359 | 전통<br>자원 | 유적 | 부여 능산리 서고분군 | 미지정 | 부여 | 백제 | 부여읍 능산리 |
| 360 | 전통<br>자원 | 유적 |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 미지정 | 부여 | 백제 | 부여읍 능산리 |
| 361 | 전통<br>자원 | 사지 | 부여 신리 청윤사지 | 미지정 | 부여 | 고려 | 규암면 신리 |
| 362 | 전통<br>자원 | 사지 | 부여 석목리 노은사지 | 미지정 | 부여 | 고려 | 부여읍 석목리<br>논절부락 |
| 363 | 전통<br>자원 | 유적 | 부여 부소산 궁녀사 | 미지정 | 부여 | 조선 | 부여읍 쌍북리 |
| 364 | 근대<br>자원 | 근대<br>건축 | 부여 부소산 반월루 | 미지정 | 부여 | 근대 | 부여읍 쌍북리 |
| 365 | 전통<br>자원 | 효사<br>상 | 부여 부소산 하동정씨정려 | 미지정 | 부여 | 조선 | 부여읍 쌍북리 |
| 366 | 전통<br>자원 | 종교<br>건축 | 부여 용정리 아술당 | 미지정 | 부여 | 조선 | 부여읍 용정리<br>산18 |
| 367 | 전통<br>자원 | 불교<br>건축 | 부여 동남리 조왕사 | 미지정 | 부여 | 조선 | 부여읍 동남리<br>산18 |
| 368 | 전통<br>자원 | 불교<br>건축 | 부여 능산리 경모각 | 미지정 | 부여 | 조선 | 부여읍 능산리 |
| 369 | 근대<br>자원 | 유물 | 부여 구아리 부여팔경 승람비 | 미지정 | 부여 | 근대 | 부여읍 구아리 |
| 370 | 근대<br>자원 | 유물 | 부여 구교리 미마지 사적현창비 | 미지정 | 부여 | 근대 | 부여읍 구교리 |
| 371 | 근대<br>자원 | 유물 | 부여 동남리 불교전래사은비 | 미지정 | 부여 | 근대 | 부여읍 동남리 |
| 372 | 근대<br>자원 | 유적 | 시인 신동엽생가 | 미지정 | 부여 | 근대 | 부여읍 동남리 |
| 373 | 무형<br>자원 | 축제 | 동학사 봄꽃 축제 | 미지정 | 공주 | 근대 | |
| 374 | 무형<br>자원 | 축제 | 마곡사 신록 축제 | 미지정 | 공주 | 근대 | |
| 375 | 무형<br>자원 | 축제 | 고마나루 축제 | 미지정 | 공주 | 근대 | |
| 376 | 무형<br>자원 | 축제 | 웅진성 수문별 교대식 | 미지정 | 공주 | 근대 | |
| 377 | 무형<br>자원 | 축제 | 계룡산 분청사기 축제 | 미지정 | 공주 | 근대 | |
| 378 | 무형<br>자원 | 축제 | 백제문화제 | 미지정 | 공주 | 근대 | |
| 379 | 무형<br>자원 | 축제 | 성흥산 해맞이 축제 | 미지정 | 부여 | 근대 | |
| 380 | 무형<br>자원 | 축제 | 은산별신제 | 미지정 | 부여 | 미상 | |
| 381 | 무형<br>자원 | 축제 | 갓개포구우여축제 | 미지정 | 부여 | 근대 | |

| | | | | | | | |
|---|---|---|---|---|---|---|---|
| 382 | 무형<br>자원 | 축제 | 세도토마토축제 | 미지정 | 부여 | 근대 | |
| 383 | 무형<br>자원 | 축제 | 석성양송이축제 | 미지정 | 부여 | 근대 | |
| 384 | 무형<br>자원 | 축제 | 굿뜨레수박축제 | 미지정 | 부여 | 근대 | |
| 385 | 무형<br>자원 | 축제 | 서동 연꽃축제 | 미지정 | 부여 | 근대 | |
| 386 | 무형<br>자원 | 축제 | 알밤축제 | 미지정 | 부여 | 근대 | |
| 387 | 무형<br>자원 | 축제 | 백제문화제 | 미지정 | 부여 | 근대 | |

■ 집 필 자 ■

연구책임 · 한상욱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호정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기본연구 2008-09 · 충청남도 역사도시의 역사문화자원 실태 분석 및 활용방안

글쓴이 · 한상욱, 이호정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8년 12월 31일 / 발행 · 2008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163(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049-9 03910

http://www.cdi.re.kr

ⓒ 2008,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